

월간 **중현**

The Monthly Chung Hyeon

'82 **12**월호



82 년 을 보 내 며

—구주성탄의 참뜻 되새기도록—

회고와 전망

선교 1 세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82년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지 근 1 백년이 지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 은총으로 전 인구의 10%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신앙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지난 1년간도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은 입으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며, 또 이 감사에서 오는 「축량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그 뿐 아니라 우리 중현교회에 내려주신 하해 같은 넓은 사랑은 교회설립 29년만에 1 만명 이상의 성도가 십자가 앞에서 화합, 화목, 일체감으로 신앙성장에 주력케 했으며, 하나님의 뜻인 새 청전건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 점도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또 교우들의 신앙성장과 믿음생활 활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공부는 목표와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술한 인재가 양성되어 각기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열심히 봉사·충성·헌신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감에서 오는 기쁨 보다는 과연 신년 첫날에 주님께 다짐하고 서원했던 기도와 간구가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는지 재점검의 시간을 가져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 생활보다는 인간중심의 생활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지? 험벗고 굶주린 고아와 과부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해 보았는지? 교회에서의 각종 직분을 맡았으면서 성실하게 충성했는지? 십일조생활과 감사생활에 인색하거나 구

두쇠 노릇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겠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참아주소서, 갈고 닦고 씨를 뿌려 열매를 맺겠습니다」로 이 해를 또 넘겨야 하는가?

구주 성탄을 맞으며……

82년도 성탄절이 다가온다.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한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또 맞이하며, 모든 성도가 생일잔치에 분주하게 되었다.

가장 작은 고을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와 우리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다시 사는 생명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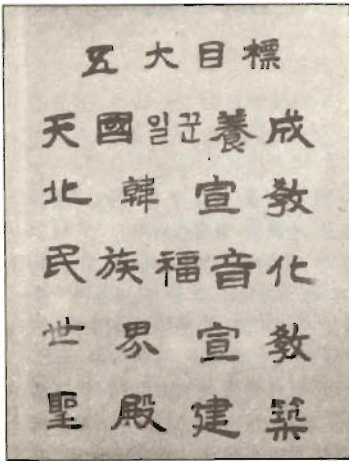
우리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주님께 경배했던 그 심정으로 경건하게 축하를 해 드려야겠다.

성탄절 때 느끼는 일이지만, 불신자와 일부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채, 향락적이고, 상업적이고, 세상을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는 축제행사로 유도하고 있음에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 날만은 가장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일상생활에 모범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날로 맞으며 보내야 할 것 같다.

최근 현대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정녀탄생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갖고 있는 이 때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중현교회 교우들이 체면적 신앙자세로 불신앙의 벽을 헐어 주어야 한다.

『지금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 장 14 절)



총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4월30일 창간 제10권 제11호 통권105호

1982년 12월호 차례

- ☐ 권 두 언/82년을 보내며 손경수 · 2
☐ 이달의 말씀/청렴한 엘리사 김창인 · 4

☐ 성탄특집

- ◇ 성탄과 성도의 자세 이세열 · 6
 ◇ 성탄의 바른 이해 김창근 · 9
 ◇ 크리스마스의 현대적 의의 이양우 · 12

☐ 지상특강/중등부초점강의 초

- 당신도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이귀자 · 15
☐ 성경강해 ③/이사야서
 •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김창인 · 19
☐ 지상논단 ⑥/심방론
 • 효과적인 심방 조영길 · 21

☐ 특별기고/83년도를 연다

- ◇ 1983년도 심방위원회 사업 및 목표 김원남 · 24
 ◇ 1983년도의 선교자세 오치웅 · 28
 ◇ 1983년도 각부서 위원 및 이사 총무국 · 25

- ☐ 성탄축시/아기 예수께 경배를 김연이 · 31
☐ 편집실칼럼/출을 김영구 · 32
☐ 신인수상/추 상 안유향 · 20
 /어느 성도의 죽음 박월희 · 36
☐ 물 댕 돌/밤에 찾아온 의원 38
☐ 신간안내/엠마오 주석 신성중 · 30

- 선교사 · 선교지 소식 33 교제소식 38
 이달의 교우동정 39 교회소식 40
 12월의 행사 42 편집후기 42



표지설명 / 12월하면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전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최대의 명절이 틀어있는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매년 12월을 맞이할 때마다 충심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크신 축복이 임하는 율해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지는 지금으로부터 1982년전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책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이달의 말씀

청렴한

엘리사

〈왕하 5:15-27〉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청렴한 엘리사에게서 배움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관과 같은 땅위에 수많은 사람이 다녔고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가 도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녀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값어치가 꼭 같으냐? 사람 중에는 ① 있으나마나 한 사람, 있어도 유익될 것 없고 없어도 섭섭할 것 없는 사람, ② 차라리 없었다면 좋을 사람, 하나님께 욕이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지옥갈 생명이 차라리 안났다면 좋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꼭 필요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엘리사는 평소 부지런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놀고 얻어먹는 거지가 되어도 안 되고, 놀고 빼앗아 먹거나 훔쳐 먹는 도적이 되어도 안 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친히 보습을 단 소 열두마리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고 했습니다. 소 열두마리가 보습을 달았으니 그 밭이 넓은 것이 틀림없고 그러니 엘리사는 부자였던 것이 틀림없는데, 남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밭을 갈고 있으니 분명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2. 엘리사는 과단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용기있게 출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 사람을 섬긴 모범적 청년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밭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이게 무슨 장난이요? 별사람 다보겠네”하고 경솔히 말했겠는데 엘리사는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제가 부모님께 작별인사를 하고 와서 선생님께서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라 떠났습니다. 엘리사는 과단성있는 결정으로 선택한 일에 용기 있게 출발했습니다.

3. 엘리사는 명백한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자 어른이던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의 종이 되어 섬기면서 따라다닙니다. 길갈(갈라섬)을 거쳐 벧엘(하나님의 집), 다음에 예리코(죄악의 성), 요단강 건너까지 왔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과 지옥에서 갈라져야 합니다. 갈라선 다음에 하나님의 품안에 주소를 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죄악의 성에 전도하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는 죽음을 각오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요단강 건너까지 따라오는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는 무슨 목적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따라 왔느냐?” 엘리사는 명백하게 “당신이 받은 성령님의 권능에 비해 저는 갑절이나 받으려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았던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왕하 5:10)

4. 엘리사는 권위있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 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나라의 1등공신으로 왕의 사랑을 독점하는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은 기가 막히고 가족은 안타깝고. 임금은 속이 상합니다. 이때 나아만의 집에 사는 제집종이 주인여자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문둥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이 다시 임금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고 와!” 그리고는 선물과 친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나아만이 비록 몸은 문둥이지만 대국 임금의 친서를 이스라엘 임금에게 드립니다. 이스라엘 임금은 기가막혀 어쩔줄을 몰라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란 대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겠는가” 이때 이말을 전해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제심을 만방에 알리겠습니다”

이리하여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당신이 나아만 장군입니까” “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면 낫는다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도로 들어갑니다.

나아만이 마침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니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은 너무 좋아서 엘리사 선지한테 왔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신이 없는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의 종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옵소서” 큰 나라의 장군이 일개 선지자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종은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겁낼 줄 모르고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물질에 매물지 않고 깨끗해야 합니다. 나아만이 내놓은 예물을 엘리사가 받지않자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권위있는 종이 하나님만 자랑하면 전도는 자연히 이루어 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평소에 부지런하여 책임에 충성하는 일군이 됩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임할 때에 우물쭈물 하지말고 과감하게 따라갑시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결을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사랑하고 죽음 앞에서는 담대하고, 물질 앞에서는 깨끗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서를 지키고 규율이 갖추어진 교회를 이루는 교회와 남녀교역자들이 되고. 이런 가운데 복을 받아 천국을 땅위에서 부터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성탄과 성도의 자세



이 세 열 목사

(신앙문화연구원)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축제 기분에 들뜹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 자체에 대한 경축보다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향락주의 경향과 신년을 맞이하는 경축으로 착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연중 행사로 무감각하게 맞이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오신날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성을 다하여 맞이하지 못함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오신 첫번째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줄 압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끄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쁜 소식과 더불어 천군천사의 찬송을 듣게 되었던 양치는 목자들은 기뻐서 베들레헴 성내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뵈고 경배하며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한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태산준령을 넘어서 유대땅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뵈고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이야 말로 예수님을 바로 맞이한 동방박사들이며, 양치는 목자들이요, 천군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첫번째 성탄절은 찬송의 밤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나시던 밤에 하늘의 천군천사들은 찬송으로 맞이 하였으며 또한 양치는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고 누가복음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첫번째 성탄절처럼 찬송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기쁜 찬송을 마음껏 부르면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첫번째 성탄절을 잘못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번째 해롯왕이었습니다. 해롯은 유대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2살 이하의 어린애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롯으로 부터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듣고 나실

내는 우리들입니다.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오신 날을 무관심하게 냉대하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불신자들입니다. ‘내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또는 여관주인처럼 영업적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고 예수님은 아무 곳이나 마굿간-같은 곳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각자의 마음 중심에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곳이 어디냐는 물음에 베들레헴이라고 무관심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야 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나신을 냉대했고 무관심하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세째는 사관주인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실 때에 방이 없어서 마굿간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방들은 손님으로 가득차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마굿간으로 영접했으며 말 구유 위에서 예수님은 탄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잘못 영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롯처럼 원수로 영접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탄절을 욕되게 하는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술주정이나 하면서 방탕과 향락으로 보

여관주인처럼 마굿간에 맞이해도 안 되며, 해롯처럼 칼을 가지고 원수로 맞이해도 안 되며, 제사장과 서기관처럼 무관심하게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접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성탄절도 여러번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맞이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옛 사람이 그대로 있고 옛날 욕심과 죄악 즉 이기주의, 교만, 해방 등 갖은 악한 것들이 그대로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한 것이 못되는 줄 알니

다.

참으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언행을 본받아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여야 하겠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고 깨끗한 마음과 겸손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1982년 크리스마스는 나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참 중생의 새 기원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은 평화이기는 커녕 싸움과 분쟁과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전쟁준비는 날마다 늘어나고 세계는 전쟁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불바다가 되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위에는 감정과 이해관계 또는 사상의 차이로 분쟁과 해방과 착각과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기는 커녕, 돕기는 커녕, 협조하고 봉사하기는 커녕, 서로 불신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방하고, 서로 싸우며 살아가며 멸망으로 달음질치고 있습니다.

이 멸망할 땅에 하늘에서 부터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으로 친히 오신 분이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세상의 구원의 신호요, 구원의 약속이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이익, 나의 잘난 자부심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으시기를 결심해야 겠지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겠지요. 복음전도, 구제사업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불쌍한 내 이웃, 내 형제들을 돌아보아야 겠지요. 절인들, 병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혈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야 겠지요.

두번째로 우리 생활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새 세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세상, 예수님을 모신 나라, 예수님을 모신 사회,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세상의 삶이란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구주께서 오신 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생활의 중심에 주 예수님을 모시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진실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평화를 위한 생활이 되어야겠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힘써야겠읍니다.

성탄절이야말로 경성의 밤입니다. 양배 곁에서 줄고 있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경성했고, 별을 보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경성했읍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경성해야겠읍니다. 양치던 목자들이 양곁에서 줄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안일과 무관심 속에 줄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경성으로 맞이하여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생활 중심에 영접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영광돌리고 전도와 구제와 화평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성냥팔이 소녀’는 눈오는 크리스마스 밤에 온 시가지는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지만 성냥 한갑도 못 팔고 떨다가 마침내 길저리 어느 처마 밑에서 얼어 죽었읍니다. 이러한 성탄절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의 구주로 비천하게 말구유 위에 오셨읍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어 급기야는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Merry Christmas !”

성탄의 바른 이해



김창근 목사
(예배강화전·오전 10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달미임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서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부여받았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위법한 불순종때문에 자기의 참된 인성을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변형한 인간들이 거룩하시고 영원토록 생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죄의 어린양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공로를 인하여서만 하나님을 뵈올 수 있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1982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영접하여야 하겠는가?

어떻게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학교에, 이 민족이 주님을 영접해야 하겠는가? 그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서 기쁘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기 원한다.

1. 구약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예언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다.

1) 원시복음에서의 예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은 저들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리셨는데 (창 3:14-19) 이때 하나님은 인류의 구주가 여인의 후손일 것을 예언해 주셨다. (창 3:15)

- 2)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을 예언 (창12:2, 3)
- 3) 유다지파의 후손일 것을 예언 (창49:10)
- 4)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을 예언 (신18:15)
- 5) 다윗의 후손일 것을 예언 (사11:1, 2, 렘23:5)
- 6) 그의 나타나실 시기는 제2성전이 서있는 때일 것을 학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학2:9, 말3:1)

7) 그의 출생지는 베들레헬임 것을 예언(미5:2)
 8)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을 예언(사7:14)
 9)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시22:)
 10)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사53:1~6)

11) 모세의 뿔뿔을 통하여 십자가에 들리실 것 예언(요3:14)
 12)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은 무덤 속에 매장될 것의 예언임(마12:40)
 이상 외에도 수많은 예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성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1)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붕괴되고 백성이 포로가 됨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유일신주의 사상을 확고하게 하여 종과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게 됨.

2) 열국에 흩어진 백성들이 회당제도를 설정하므로 복음전도를 위한 유일신주의의 보전과 보급을 위한 준비가 됨.

3) 세계적인 문학어인 헬라어의 통용으로 복음선전에 사용될 매개물로 준비하심.

4) 알렉산더(Alexander)는 헬라 동방을 통일하고 시저(Caesar)는 라틴 서방을 통일하였고 로마의 도로와 법률은 땅끝까지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심.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보여주며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짐을 깨닫게 된다.

3. 신약성경의 예언과 성취

1)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마1:20, 눅1:26~38)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는 처녀 마리아와 그와 정혼한 요셉에게 다윗의 위를 영원히 계승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자)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심.

2) 세례 요한의 모진 엘리사벳의 예언(눅1:41-45)

3) 제사장 사가랴의 예언(눅1:67-79)

4) 모태에 있는 세례 요한도 기뻐함(눅1:41,44)

5)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언(눅2:10-12)

6)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이 예증함(마2:2)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예언한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하시기 위하여 동정녀(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유대 땅 베들레헬 말구 유에 천군천사의 찬양(눅2:14)을 받으시며 이 땅에 탄생하셨다.

4.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만난 사람들

1)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들

① 동방의 박사들

이국 먼길을 별을 따라 찾아와 귀한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며 정성껏 주님을 영접함(마2:11).

②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의 음성을 따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감(눅2:20)

③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찬양 경배함(눅3:29~)

④ 여선지 만나의 기쁜 영접을 받으심(눅2:36)

비록 이들은 세상의 명예나 권세는 없었으나 그들의 영혼의 눈이 밝게 되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영접한 축복된 사람들이 되었다.

2) 예수님의 탄생을 배척한 무리들

① 헤롯왕

자기의 왕위 보존을 위한 야망 때문에 칼을 들어 무죄한 영혼들의 피를 흘림(마2:16).

②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베들레헬에 태어나실 것을 성경을 연구하여 알고 있었으면서도 영접치 않음(마2:4-6)

③ 유대백성들

선민이라고 교만하던 그들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을 하면서 중심에 영접치 않음.

이들은 자신의 욕심, 교만, 불신 때문에 찾아오신 주님마저도 영접치 않고 배척해 버린 불쌍한 인생들

이 되고 말았다.

5. 성탄하신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

1)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보좌를 가지신 하나님이며(시 44:6, 7, 110:1), 전능하신 하나님이며(사 9:6),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계시를 받으신 분이시며(마 11:27),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며(요 3:13),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친히 증거하셨다.(요 5:17-18) 그는 어떤 점에서 출생과 시작의 관념의 작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에 사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 8:58)

사도들도 증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마 16:16-베드로)이시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 20:28-도마) 바울은 “성결의 성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롬 1:4),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도”(골 1:15, 16),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빌 2:6)고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표하여 무한한 가치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 부활하시기 위해 신성이 필요하셨다.

2)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약의 구약, 신약성경 예언 참조)

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다윗, 유다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물질적인 신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소유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② 육체와 지혜가 장성하심(눅 2:40, 46, 49, 52)
자라시며 문제들을 물으시며, 순종을 배우시고, 시험을 당하고, 수난을 통하여 완전에 달하셨다.

③ 사람이 겪는 경험을 가지심
기갈, 피곤, 수면, 사랑, 기쁨, 분노, 민망, 우시고, 기도하시고, 피땀을 흘리시고, 열구리가 창에 찔려 피 물이 쏟아지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④ 인성을 가지셨으나 무죄한 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시므로 원죄의 오염을 전혀 받지 않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6. 예수님이 오셔서 담당하신 중보사역

1)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심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교훈, 권면, 영광스런 축복의 기업을 약속하심.(요 3:16)

2) 제사장직을 감당하심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히 7:25)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명의로 그들에게 축복하는 중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어린양의 속죄제물이 되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대제사장이 되심.(히 9:22-28)

3) 왕의 직을 수행하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영원한 우주의 대왕으로 오늘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왕권을 행사하시며, 간섭,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재림의 왕, 심판의 대왕으로 재림하실 주님이시다.

7. 결 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 타락하여 멸망의 자리에서 이르렀을 때 저들의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선택된 자들을 구원키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으며 이날이 야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다.

우리를 구원키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 앞에 결허히 죄를 회개 자복하여, 할렐루야 찬송부르며, 감격의 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온 몸, 마음, 정성, 생명을 드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만을 위해 살아드리기로 다짐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기원한다.

크리스마스의 현대적 의미



이
양
우
목
사
(천주교 신부)

서 언

주님나신지도 벌써 1982주년이 되는 오늘!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상업화된 축제일이 되고 말았다. 구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과 오락을 위한 성탄절로 전락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대로 성탄절을 방치할 수는 없다. 참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도와 교회들은 금년에도 맞게되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인 줄 생각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현대적 의미(意義)」란 제목을 가지고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앞둔 오늘에 처한 한국교회와 천주교회는 아래 「3가지 영적 운동」을 반드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첫째〉「성육신」(成肉身)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찾아가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영원한 말씀」이시며, 「임마누엘의 말씀」이시요, 「창조의능력」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빛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덧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 심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요 1:14, 마 1:21)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본받아, 죄인들을 찾아가 죄사유의 복음을 확신있게 전해야 하겠으며, 가난한 자와 병든자를 찾아가 하늘과 땅의 부요와 치료를 주시는 생명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또 가난한 이웃-고아, 과부, 불쌍한 노인들 등-들을 사랑의 손길로 꾸준히 돌보고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특히 보수교회들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너무 소홀한 감이 없지않다.

예수님은 「십관날」에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일, 즉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도와준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다.」 (마25:34~40)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과 강도 만난 자들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희생의 정신으로 찾아가서 위로하며, 도와주며, 그들의 심령과 생활을 붙들어 세워주는 운동을 힘있게 실천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제사장적인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구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창 3:15) 으로서, 「그 선지자」 (요 1:21) 으로서, 「죄인을 위해 고난받는 종」 (사 53:1) 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 (히 7:26~28) 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즉 「유월절 양」 이신 속죄양이 되어 주셨다. (요 1:29)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가정과 교회의 제사장,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릴 책임이 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대중이 아니다. 오직 사명을 받고 청지기 의식을 가진 소수이며, 또 사회와 국가의 무거운 십자가를 담대히 지기를 원했고 묵묵히 지고갔던 소수의 희생봉사자였다.

한국의 개신교 신자가 약 800만명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100주년만에 경이적인 부흥이 아닐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축복된 일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자와 교회들이 사회, 민족, 국가를 위해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고 자문자답해 볼 때, 부끄러운것 밖에 없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의 재찍을 사랑의 손길로 바꾸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치가와 국민간의 화목제물, 이웃과 이웃간의 화목제물이 받드

시 되어야 하겠다.

「참되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화목과 공의와 평안이 넘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가정과 사회」 「국가와 민족」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제사장의 기도」와 「희생 봉사운동」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부터 솟아오르는 아침태양같이 힘있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세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과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요 11:25, 26) 그가 가시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죄용서의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앓은 병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한 번도 장례식을 집행하신 일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민족 부활운동」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절망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심어 부활시켜 주고, 죄와 죄책이 무성한 곳에 죄용서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죄용서 받은 기쁨과 감격 그리고 평안을 심어주고, 불신이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어 신뢰와 공의가 충만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부정과 부패와 음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함으로 「정결운동」, 「맑아지는 운동」을 일으켜야 하겠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두움이 있기에 필요하다. 절망과 죄책과 불신과 부정, 부패, 그리고 미움과 시기의 어두움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소망과 죄사유의 빛, 깨끗함과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어 길을 잃고 헤메이는 내 민족과 사회에 갈 길을 안내하는 「밝은 등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이며,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는 「조미료」이다. 오늘 20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부정, 불의, 음란, 불신, 그리고 부도덕으로 썩어가는 이 사회를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부제가 되어야 하겠고, 또한 가정과 사회, 이 민족 구석 구석에 사랑과 희락과 감사의 맛이 없어 괴로와 하는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화목, 기쁨, 인내, 양선, 절제, 및 감사의 참 맛을 풍성히 채워주는 「민족 부활운동」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절망과 어둠의 세대, 죄와 불의의 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소망과 진리의 세대로 전환시키며 개혁시키는 기독교 선교 제2세기를 오늘 이 시간 부터 개척해 나가야 하겠다.

「민족의 부활」 「정신 혁명」은 샤마니즘이나, 유교, 불교등의 전통 종교나, 기독교의 이단종파 (통일교, 전도관, 물몬교 등)들에게 결코 말길 수 없다.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몸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 반드시 열릴 줄 확신한다.

결 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①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 되는 「확신운동」이 일어나야 하겠으며,

② 심령과 교회와 환경을 맑게하는 「정결운동」을 교회 자체내에서 부터 일으켜야 하겠고,

③ 또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되는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하겠다. 그리고

④ 종교개혁 정신인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고

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즉 「신자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의 법칙」이라는 신념을 굳게 확립해야 하겠으며

⑥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장래의 꿈과 환상을 보아야 하겠으며,

⑦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신자들은」 「교회와 민족의 제사장」이 다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만이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 즉 「민족의 부활운동」, 「생명운동」을 능히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임마누엘 —



“내가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당신도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이 귀 자 교수

(충신대 종교 음악과)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를 남보다 훌륭하게 키워야지, 무슨 일을 뛰어나게 하도록 키워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개 '자녀가 공부를 일등하도록 키워야지 또 그림을 잘 그리도록, 음악을 하도록 해야지 또 남보다 건강하도록 키워야지' 하는 등 남보다 무엇을 더 잘하고 행복하게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 보낸다는 사실 만으로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다.

특히 한국의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 자신이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녀들 보고 "애, 이것 잘해라. 거기는 가지 말라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하겠다. 우리는 마음 속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훌륭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부모인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충분히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 필요한 것을 주고, 자녀들을 교회에 보낼 수 있게 되는 등 이와같이 해주는 것이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물질적인 것을 자녀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마음 속으로 부터 경외하고 하나의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책임감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으로 만드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행복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훌륭한 부모의 할 일이라 하겠다.

1. 어떻게 하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겠는가?

(1)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목표가 있어야겠다

건축가가 미리 설계를 하고 비용을 계산하는 것같이 한 아이가 성장하여 사회인이 되고 한 사람이 성숙한 신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목적있는 계획 밑에서 키워야 한다. 이 계획은 앞으로 의사를 만들겠다, 법률가를 만들겠다 하는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키워야겠다는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고 진흙과 같다고 했다. 이는 부모들이,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끌어 가고 지도해 나가는데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를 신자로서 키운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가치를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2)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자녀의 특성을 알아야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다.

하임. G 키너트가 쓴 「부모와 십대」라는 책에서는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사춘기 아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반항한다.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자녀의 모든 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치맛바람까지 일고 있다.

둘째, 이때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시기이다. 자라나는 시기이고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때로는 행동이 거칠어지기도 한다. 세상의 환경 역시 복잡하고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이 거칠기만한 현대이다.

셋째로, 늘 긴장 속에 살기 때문에 부모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기도 한다.

넷째로, 자기가 이미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른 대접받기를 원하고 독립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 뒷받침해 주려고 하면 싫어하고 지나친 칭찬을 싫어하여 거짓말이라고 인정해 버린다.

다섯째로, 어른들의 설교식 훈계를 싫어 한다.

여섯째로, 자기 자신의 비밀을 가지려고 하는 나이의 아이들이다. 일기장을 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들추어내면 부모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인정해 버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려고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보편적인 특성도 많겠지만 이런 특성을 알고 있어야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가 있겠다.

2.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잘 지도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하고 거기에 따른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으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사도 바울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둘째로, 훈계하라.

셋째로, 노엽게 하지 말라. 곧 사랑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부모들 한테 맡긴 명령이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사랑해 줌으로써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다.

(1) 그러면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가?

① 자녀의 가장 중요한 스승은 부모이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된다.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야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갈수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단순히 주일,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성경보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 생활의 적은 면 하나하나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 예법을 가르친다든지, 집안일을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는 것 등이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요사이 아이들은 너무 일거리가 없어서 문제가 많다고 한다.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정서적인 면과 그들의 육구불만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시켜야 한다.

② 그리고 말이나 행동의 겸손을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어야 된다. 가르친다는 것은 먼저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다음에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갈갈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였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니깐 자녀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③ 다음에는 규칙을 세워서 가르쳐야 한다. 무엇을 할 때 어떠한 규칙이 없으면 질서가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 때나 자고, 일어나고, 먹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용돈을 주고 너는 그 태두리 안에서 사용하라 그 이상의 특별한 것이 있으면 청구해라 이런 규칙을 세워야 한다.

④ 친구의 범위를 알아야 한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장래 문제라든지 인간 됨됨이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친구 집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가정의 구체적인 것까지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구체적인 것을 물으면 별것다 가지고 묻는다고 야단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알아야 된다고 인식시켜 주어야 다음에 좀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켜야 한다.

⑤ 자녀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



면 안 되고 부모들이 교회에 오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단정한 몸가짐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 는 태도 등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실제 생활에 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교회만 가라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예배를 안드 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라 하면 "교회는 주일만 가 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가정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⑥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호통을 치면서 우리나 라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면서 학군을 위반하고 가짜로 전입을 시키기도 한다. 그 어머니는 학교에 들어가는 귀한 자녀에게 거짓말을 첫째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이 학생이 자라나서 사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면 자신이 또 거짓말 하게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예이지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한테 원칙을 세워 주어야 되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어야 되고 그 적용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모범을 보여 줌으로써 가르쳐 주어야 되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부모가 알아야 한다. 단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지식적인 전달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들이 실제 생활에서 배운 바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켜 보아야 한다.

(2) 훈계해야 한다

훈계라는 것은 순종할 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3:12)고 하셨다. 훈계는 어린이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충실히 얘기해 주고 그 어린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잘못 되었을 때 때린다거나 어떤 벌을 가하는 것이 훈계지

어린이를 무조건 노엽게 하는 것은 훈계가 아니다.

또 잠언 4장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고 했다. 훈계를 받지 않은 아이는 생명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훈계로서 자녀를 가르쳐야 될 것이다. 훈계한다는 것은 곧 복종하게 하는 것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복종은 할 때가 있어도, 안할 때가 있어도 좋다는 식으로 가르치면 안된다.

이러한 훈계를 받은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훈계는 필요할 때에 즉시로 해야한다. 전도서 8장 12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고 하였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담대해 가지고 악을 더 행한다고 되어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왜 그것이 나쁜지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런 행동을 안하고 좀더 긍정적인 면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훈계가 되고 만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 하였나이다」함과 같이 모든 인간은 죄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하는 데는 어떠한 경계선을 만들어놓고 해야 한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재역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어린이들은 부모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 테스트에 속지 않도록 항상 연구하고 자녀의 행동을 주시해야 훈계를 바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아이의 마음에 없었던 잘못된 생각이 다 쫓겨 나간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훈계를 할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이의 분노만 사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어떤 얘기 엄마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는 글을 썼는데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우리 어머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인색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다른 애들은 저녁먹기 전에 사탕을 먹으려고 할 때 우리 엄마는 먹지 못하게 했고 남들은 추운 날 학교에 가기 싫어 피병을 앓지만 우리 엄마는 일 어나서 가라고 학교로 내쫓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엄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자녀들을 키우려고 할 때 나는 우리 엄마와 똑같이 인색한 엄마로서 자녀를 키우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인식하다고 할 정도로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지도해야 되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똑같은 행동인데도 기분이 좋으면 그냥 두고 기분이 나쁘면 짜증내고 야단하는 이런 일을 하면 자녀는 혼동을 일으킬 수 밖에 없게 된다.

(3) 자녀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들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집에서 저녁경전회를 가지고, 오늘은 각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나쁜 일이 있었는가, 마음 괴로운 일이 있었는가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가족간의 친목도 되고 부모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드럽게만 대해주면 되는 줄 아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3. 어떻게 하는것이 자녀를 잘못 가르치는 것인가?

제멋대로 된 자녀를 가르치는 예를 크리스텐슨이 쓴 「기독교 가정」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로,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것을 다 주고 바라는 것을 다 해준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세상이나한테 빚을 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자란다고 했다.

둘째로, 나쁜 말을 할 때 웃는다거나 귀엽다고 해 주면 그 말이 좋은 줄 생각한다.

셋째로, 영적인 훈련을 해 주지 않는 것이다. 어렸을 때 부터 제멋대로 놓아주면 성장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곤란해지고 실패자가 되고 만다.

네째로, “그것은 안 된다”하는 말을 안하는 부모는 자녀를 잘못 가르치는 부모다.

다섯째로, 뒤쫓아 가면서 아무 것이나 다 치워주고 책을 읽는데도 무슨 책인지 검토해 보지않고 방치해 두는 부모다.

여섯째, 자주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다음에 자라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싸울 가능성도 많고 가정이 파탄되어도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용돈을 쓰고 싶은대로 주는 것, 정도에 맞는 용돈을 줘야지 그 이상을 주면 쓸 줄만 알고 돈은 항상 나오는 줄 알고 자라게 되어 요령있게 무엇을 못하게 된다.

여덟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식만 귀하고 자식편만 드는 것은 이해롭지 못하다. 피차에 잘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커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하게 되면 그 부모야말로 정말 실패하는 부모가 되고 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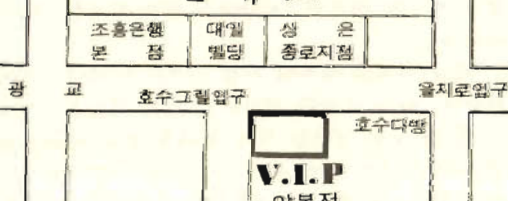
위에 예를 든 몇 가지를 전제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신이 훌륭한 부모가 되고 자녀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예복전문

V.I.P 양복점

안 내 도



TEL. 778-1700

(조흥은행본점앞 호수그릴 1층)

◇ 중현교회 교인에 한하여 20% 할인함





김창인목사의 이사아서 강해 ③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④ 하나님을 슬프게 할 정도로 부패함

여기 “범죄한 나라”라는 말은 범죄한 지도자들, “허물진 백성들”이란 말은 무지한 백성들 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은 악독하고 백성들은 어리석으니 다 함께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되는데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악마와 죄 가운데서 춤추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버리니 고생의 구렁텅이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고 유대를 보고 안타까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들,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인생들, 자기의 책임을 모르는 인생들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짐승만 못할뿐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악마를 가까이 했으니 형용할 수 없이 썩어지고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이렇게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버리고 멸망받을 길을 숨차게 쉬지않고 달려가고 있으니 불쌍하고도 슬픈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20세기 후반기에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여! 인간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으나 인간이 지은 죄악은 일찌기 보지 못하였던 흉칙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땅덩어리

는 음란에 젖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음란에 젖어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독해졌습니다. 얼마나 악독해졌는지 요즈음 세계의 모든 나라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머리좋은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밤낮 연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잡이—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죽이고 빨리 죽일까 하는 그것만 연구합니다. 그 이상 더 미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해도 시원치 않은데 머리좋은 천재는 전부 끌라서, 나라의 돈을 전부 들여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죽일까 하는 문제를 연구합니다.

만약 짐승들이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볼 수 있다면 기가 막힌다고 침을 뱉을 것입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20세기 후반의 이 세상을 욕하기 보다는 나 자신을 찾아 봅시다. 내가 채지보다 욕심이 더하지 아니한가? 내가 개보다 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나는 곰보다도 더 어리석게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아니한가? 나 자신을 찾아 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미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잘나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보다 못한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은총으로 주신 복인데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잘 살게 될때,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영광과 바꿔 먹은 일이 없습니까? 큰 반성과 자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 앙

이번에는 죄를 범한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대단히 무서운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왜 그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일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의 결과가 있습니다.

일을 한 다음에 오는 열매가 무엇이나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혹은 상을 받고, 혹은 벌을 받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1. 매(재앙)를 맞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 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사1:5)

1) 패역을 더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잘못을 법하게 되면 책망을 받고 좀더 잘못하게 되면 책망을 더 심하게 받지만, 패역하게 되면 하는 수 없이 매를 맞습니다.

패역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패역이라는 말은 알고도 거스린다는 말입니다. 몰라서 거스린 것은 미련이지 패역이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나는 안듣겠습니다.”

이것이 패역입니다. 패역은 옷사람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줄 알지만 옳은 말씀은 안듣고 나쁜 짓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역하는 자는 책망이 아니라 매를 맞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패역하여 매를 맞는데 한번 매를 맞고 고치면 때려준 사람이 오히려 상처난 곳을 싸매어 줍니다. 부모가 패역한 자식을 때릴 때,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그럴게요. 하고 고치면 때린 아버지는 가슴이 아파서 “아, 얼마나 아프니” 하고 싸매어 줍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 상처를 받고는 “아버지 나 때렸지요, 어디 두고 봅시다 보자구요” 이라고 달겨들면, 매를 더 맞아야지 벌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것에 책망을 받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 징계를 받고는 잘못을 고칠 생각은 꿈에도 갖지않고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내려줬지요? 어디 두고 봅시다.” 이렇게 패역을 더하고 더합니다.

2) 지도자들이 패역하기 때문이다

“온 머리는 병 들었고” 지도자들이 패역을 더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패역하느냐? 어린 아이들이 패역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패역하고, 모르는 시골 사람이 패역하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 더하고, 일반 서민들이 패역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지도자, 장로, 목사님들이 더하고, 나라의 정치지도자, 장관, 국회의원들이 패역했다는 말입니다. 옷사람들이 못된 짓을 제일 먼저 한다는 말입니다.

“온 머리가 병들었다”는 말은 지도자들이 정신병이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치 버스 운전기사가 정신병이 들었다면 그 차에 탄 70여명의 손님들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행스러운가 말입니다.

□ 신앙수상

추상 (追想)



안 유 향 권사

나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나의 뇌리를 지나는 추억이 있다. 그것은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하고 목이 쉰 소리로 암송하던 저 유명한 「헬렌 켈러」여사의 숭고한 모습이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 내가 여학교 5학년 때 재학시절이었다. 일본의 한 미션 스쿨에서의 일이다.

「헬렌 켈러」여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의 삼중고(三重苦)를 가진 불구요, 인간으로서 가장 불행한 핸디캡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세살 때까지는 여느 아이들과 같이 한창 재물을 떨었던 귀여운 여아였었다. 그러나 어느날 밤 갑자기 그녀는 성홍열이라고 하는 심한 열병을 앓았다. 그 후유증으로 얻은 것은 귀머거리요, 장님이요, 벙어리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삼중고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녀를 그대로 버려두지는 아니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련은 절대로 주지 않으셨다. 그녀에게 「설

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를 준비하시고 계셨다.

설리반 여사는 어린 헬렌을 데리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쳤고, 또한 오묘하고 위대하신 솜씨를 가르쳤다.

물질의 감촉을 느끼게 된 후, 그녀가 맨 처음 안 것은 물(Water)이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손바닥에 담아서 그 감촉을 느끼게 하였다. 그 다음은 나뭇잎(Leaf)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영(魂)의 눈을 뜨게 하셨다.

헬렌 켈러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는 두 눈을 뜬 사람도, 두 귀가 열린 사람도, 입이 있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얻기 어려운 신학박사, 철학박사, 인문학박사라고 하는 세 가지 박사학위를 따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 최대의 명예를 가진 세계적 인물이 되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이들도 이 위대한 「헬렌 켈러」여사를 본받아 불굴의 의지로 삶을 헤쳐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나라의 위정자가 정신병이 들었다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어느 시간 어느 낭떨어지에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갈빗대가 부러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병들었으면 그 교회에 모인 교인들이

영생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다가 이단에 끌려가고 악독한 이리에게 끌려가서 손해를 당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병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머치광이가 된다는 것이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심방 ①

— 심방에 대한 성경적인 小考 —



조영길 목사

(심방부 4지구 담당)

심방위원회에 소속하여 묵백여 세대를 맡아 바쁘게 심방을 하면서도 항상 나의 마음 속에는 좀더 효과적인 심방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는것 같다.

그러므로 지금에의 심방, 이대로가 좋은가? 를 생각하면서 심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시정하며 보완하여 성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심방을 위하여 연구하여 불 마음을 늘 가지면서도 이 방면의 전문서적도 없고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 성경적으로 조망하여 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느껴보는 것이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것 같다. 과거 십여년의 목회 경험을 통하여 오면서 지금까지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고 돌아서면서 마음 속으로 과연 오늘의 심방은 만족할만하고 성공적인 심방 이었다! 고 느끼는것 보다는 오히려 좀더 심방을 잘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부터는 아무래도 금년 보다는 더 많은 세대를 맡아 (아마도천여 세대) 심방하며 양배들을 돌아보아야할, 업무량이 더 많아지게되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심방관을 한번 검토하여 불겸, 성경적인 심방관을 대략 살펴 보면서 정리하여 보려고. 감히 시도하는 용기를 가져본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처럼 덜어놓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여 보면 무엇이 나와도, 다소라도 심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나오리라고 기

대하면서 우리 충현지에 몇번에 나누어서 게재하기로 했다. 독자 여러분들은 기도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I. 심방이란 말에 대한 이해

먼저 “심방”이란 말(용어)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심방이란 개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심방(尋訪)하다

우리 국한문 성경에 찾을심, 찾을방 자를 썼다. 그러므로 찾는 것이 심방이다. 목회자가(혹은 교역자가) 양배들인 성도들을 찾는 것이다. 이 찾아가는 것은 물론 성도 개인적인 방문이요, 그것도 가정일 수도, 직장일 수도 있겠다.

우리말 성경(개역 한글판)에 신구약 전체 성경중에 “심방”이란 말 씀은 단 한번만이 나온다.

“그 후에 삼년만에 내가 계바를 심방(尋訪)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십오일을 유할새”(갈 1:8)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심방”이라고 한 말은 히스토레오(Historeo)라고 하였다. 그 뜻은

- ① 히스톨(Histor) - 안다 (knowing)는 말에서 왔다.
- ② 문의하고 시험하여 확인하여 본다는 뜻이다. (to ascertain by inquiry and examination)
- ③ 문의하다. 묻는다 (to inquire-of)는 뜻이다.

④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심방하다 방문하다 (to visit) 는 뜻으로 사용 하였다.

결국 심방이란? 양배들을 찾아 방문하여 여러가지로 대화 하면서 그 양배를 정확하게 알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가르치고 기도하여 주며 붙잡아 주는 것이다.

2. 방문(訪問)하다

찾을방, 물음문 자를 썼다. 그래서 목회자가 양배들을 찾아가서 형편을 묻고 거기에 대처하여 주는 것이 심방이다.

의미상으로 볼 때는 심방이란 말 보다는 방문이란 말이 더욱 원문에 가깝게 보여진다. 그러나 심방이란 말이 더욱 친근감이 있게 우리 한국교회에 도착화 한것 같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訪問) 하자 하니”(행 15:36)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방문”이라고 한 말은 에스트레포(Epistrepo)라고 하였다.

그 뜻은:

- ① 위로, 넘어서, 라는 말과(전치사 epi) 돌아오다, 돌아서다 라는 말에서 왔다 (Strepo=to turn, turnback)
- ② 그래서 돌아오다, 돌아가보다는 뜻이다. (to turn towards, to-turn round, to bring back) 결국 심방이란? 말씀(복음)을 받고 생활하는 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찾아가서 살펴보고 격려하며 바로 잡아주

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심방의 뜻과 내용을 잘 말씀하여 주었다고 본다.

3. 찾다 혹은 찾는다

신구약 성경에 심방을 뜻하는 많은 표현 중에 “찾는다”는 말씀이 있다.

(신약)

①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19:10) 여기에서 “찾아”란 말씀이 제

테오(Jeteo)란 말씀이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넓은 의미에서 심방을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심방이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의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는 것이다. 이것이 심방의 근본 목적이요 내용이 되지 않고서는 참된 심방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②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와서”(눅15:4-5, 8-9) 여기에서 “찾아”란 말은 휴리스코(Eurisko)이다. 눅15: 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것이 심방이다.

③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밖에 서서 불러 묻되...(행10:17) 여기에서 “찾아”란 말은 디에로타오(dierotao)란 말이다. 가이사라의 주둔군 로마 군대 이탈리아

부대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경건한 중졸을 보내어 욥바의 시몬의 집 지붕위에서 기도하는 베드로를 심방케한 내용이다.

④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행11:25) 여기에 “찾으러”란 말은 아나제테오(anajeteo)이다. 찾는다는 헬라 말이 이와같이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한결같이 그 중심의 뜻은 심방을 의미한다.

Geteo- 찾다. 구하다. 추구하다.

Eurisko- 찾아내다. 만나다.

Dierotao- 문의하다. 문의하여 확인하다.

Anajeteo- 부지런히 찾다. 사람을 수색하여 찾다. 는 등의 뜻이다. 우리는 이같은 말에서 아주 적극적인 심방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열심이 있고 철저하고 분명한 심방이다.

(구약)

⑤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흠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흠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 낼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부엌은 온 가족의 주된 생활공간 부엌만의 전문설계가 필요합니다.

온 가족이 시간을 함께하는 주된 생활공간인 부엌. 부엌은 부엌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나름대로의 독특한 분위기로 꾸며져야 합니다.

보다 위생적이어야 하고, 작업능률이 고려되어야 하고, 작은 위험 요소라도 사전에 제거되어야 합니다.

싱크대·조리대·벽장·코너장·까스렌지



(주) 한샘
성동대리점

대표 김 광 신 장로
서울·성동구 하왕2동 966 전화 293-7336

찾으며”(겔34:11-12, 16)이 말씀 속에 “찾는다”는 말씀이 여러번 나온다. 이같은 말씀은 분명히 심방을 뜻하고 그 구체적인 심방의 내용과 목적과 방법까지 제시하여 주시는 것 같다. (겔34:1-24까지 참고)

여기에서 “찾는다”는 말은 바까(baggarak, 동사는 bagar)이다. (겔34:4, 16, 아3:1-2, 5:6, 6:1 등) 특별히 아가서에서 찾는다는 표현은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애처롭게 찾는 모습이다. 솔로몬이 사랑하여 사모하는 술람미 여인을 찾는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심방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우리 주님,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는 줄을 다 알고있는 처지이다. (아6:13) 솔로몬이 그 얼마나 술람미를 사랑하며 보고파 하였고 진지하게 찾았던가? 오늘 교역자는 교인들을 심방함에 있어서 이같은 정신과 마음 가짐으로 돌아와야만 하겠다.

4. 권고(眷顧)하다

돌아볼권, 돌아볼고 자를 썼다. 그래서 심방이란? 교역자가 교인들을 잘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권고”란 말씀은 영역(英訳) 성경에 보면 모두 다 방문한다

(Visitation)는 말로 되어있다(KJV와 RSV 그리고 TEV에서, 그러나 뱀전 2:12의 경우 “권고”를 현대영역(TEV) 성경에서는 “그의 오심” His Coming)이라고 하였다)

예: 뱀전 2:12-“권고 하시는 날에”(day of visitation 방문의 날)이라 하였고, 눅19:44-“권고 받는 날”(day of visitation)을 역시 그의 오시는 날 이라고 하였다.

“권고하다”는 말씀을 신약에서는 에피스코페(episkopy) 라고 하였다. 그 뜻은:

- ① 시찰하다 감찰하다 (inspection)
- ② 감시하고 단속하다 (oversight)
- ③ 방문하다 문안하다 (visitation)이다.

구약 에서는 권고하다는 말씀을 패꾸다(pequddah, 동사는 파까드(paqad))이다.

그 뜻은:

- ① 방문하다 문안하다 (to visit)
- ②와서 보다 (go or come to see)
- ③ 시험하고, 입증하다 (to examine, prove) 등이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 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욥10:12)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람을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람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람이

잉태하고...” (창21:1)

“...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출3:16)

“그가 모압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식량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룻1:6)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삼상2:21, 시8:4, 17:3 65:9 랍15:15, 29:10 등 참고)

이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여(심방하여) 주심으로 용은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잉태하여 약속의 아들이 삭을 낳았으며,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모압 땅에 가서 패가망신한 나오미가 고국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이 찾아온 소식을 들었고, 무자하였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얼마나 심방(권고)의 축복이 큰것인가?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중현교회와 사천오백여 세대와 우리 중현치 애독자들을 심방(심고, pagad)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계속)

인삼 수삼 벌꿀도매

◎ 취급품명

- 고려인삼 • 수삼 • 홍삼제품일절
- 벌꿀 • 로얄제리 • 화분(꽃가루)
- 쌍화차 • 각종인삼차 • 각종자연식품

중부수삼센타
보 성 약 국

전화 273-5397·267-9819

◎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이 갑 재 집사
한 숙 원 집사

1983년도 사업계획및 목표

— 심 방 위 원 회 —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는 1980년대 본교회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자”라는 슬로건에 따라 83년도의 사업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실시하고자 한다.

1. 조직과 임무

(1) 위원회

위원장 : 김원남
서 기 :
회 계 :
위 원 :

(2) 지구 담당자 및 해당구역

지구 / 교역자	목 사	전도사	협력교역자	해 당 구 역
1 지구	조영길	김순옥 정복인	안석열 이진희 안석열 이진희	성동구, 초월, 성남시, 양주군(481세대) 동대문구, 강동구 총 1076세대
2 지구	김창근	현정남	허충옥, 김경성	중구(신당, 황학, 쌍림) 강남구(대치, 청담), 도봉구, 성북구, 의정부 총 789세대
3 지구	김원남	최순복	유국남, 장영자	중구(장충, 을지로, 저동, 장사, 입정, 장교, 주교, 방산, 예관), 강남(압구정동, 삼성, 학동) 총 772세대,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고양군.
4 지구	한영철	구명신	이양우, 김연이	중구(목정, 충무로, 인현, 초동, 오장, 광희) 강남(신사, 논현, 역삼, 도곡, 개포, 내곡, 외곡), 마포구, 영등포구, 강서구, 김포, 인천 총 797세대
5 지구	이세열	김용선	김수성, 유순화	중구(필동, 남대문, 회현, 남산, 예장, 남창동), 강남(서초, 우성, 무지개, 신동아), 반포, 방배, 용산, 관악, 구로, 동작, 시흥, 과천, 안양, 광명, 수원 총 787세대

(3) 분 과

i) 분과담당

- ① 인사분과 :
- ② 심방분과 :
- ③ 교육분과 :

- ④ 통계분과 :
- ⑤ 확장분과 :
- ⑥ 기획분과 :

ii) 분과의 임무

① 인사분과

교회의 제직 및 각 구역권찰 후보 작업 배치 이동에 관한 일체사무를 담당한다.

② 심방분과

심방에 관한 연구 및 지도

③ 교육분과

구역장 및 구역권찰들을 위한 교육훈련과 각 구역원(확장원) 교육을 담당한다.

⑤ 확장분과

구역원(확장원)을 지도하며 구역 확장운동(전도)을 연구, 실시한다.

2. 지구편성 및 담당교역자의 심방임무와 심방방법

(1) 지구담당 교역자의 임무

i. 지구담당 총책 목사의 임무

- ① 지구에는 구역담당 총책 임 심방 지도목사 1인을 둔다.
- ② 목사는 대심방, 기타심방, 그리고 구역원의 교육과 훈련을 맡는다.
- ③ 목사는 심방부 구역원 훈

④ 통계분과

등록 카드, 심방카드, 서신엽서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각종 통계 업무를 일체 담당한다.

련과 교육을 위한 교안, 구역공과를 작성한다.

ii. 지구담당 전도사의 임무

- ① 지구에는 담당전도사를 두어 구역의 모든 해당사무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② 전도사는 이사, 환자, 출산, 기타 구역에서 요구하는 심방에 응하되 때에 따라서는 목사와 함께 심방하는 경우도 있다.

③ 등록자의 등록사무를 책임진다.

iii. 지구담당 목사와 전도사가 협동하는 임무

① 지구담당 목사와 전도사가 상주하는 때,

갑작스러운 심방요청에 대해서는 해당지구 교역자가 아니라도 상주하는 교역자가 심방에 응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심방은 담당교역자에게 알려 선처하도록 한다.

② 상주하게 되는 목사와 전도사는 전화 심방 서신 심방에 응한다.

④ 매심방, 노인심방, 결혼, 장례, 출생, 생일의 심방은 목사, 전도사가 같이 심방한다.

(2) 협동구역장과 구역장의 임무

구역편성 제 2 안에 인한 협동구역장과 구역장의 임무이다. (5 지구로 편성함)

i. 협동구역장의 임무

자구에는 협동구역을 두고, 협동구역장 장로 1인을 두어 업무를 수행케 한다.

① 협동구역장은 협동구역내의 모든 일군들과 교인들을 심방하며 지도한다.

② 협동구역장은 구역장이 없는 곳이나 구역예배를 인도하는데 부족한 분을 돕는다.

③ 협동구역장은 구역장의 보고를 들은 즉시 중요 사항을 담당 교역자에게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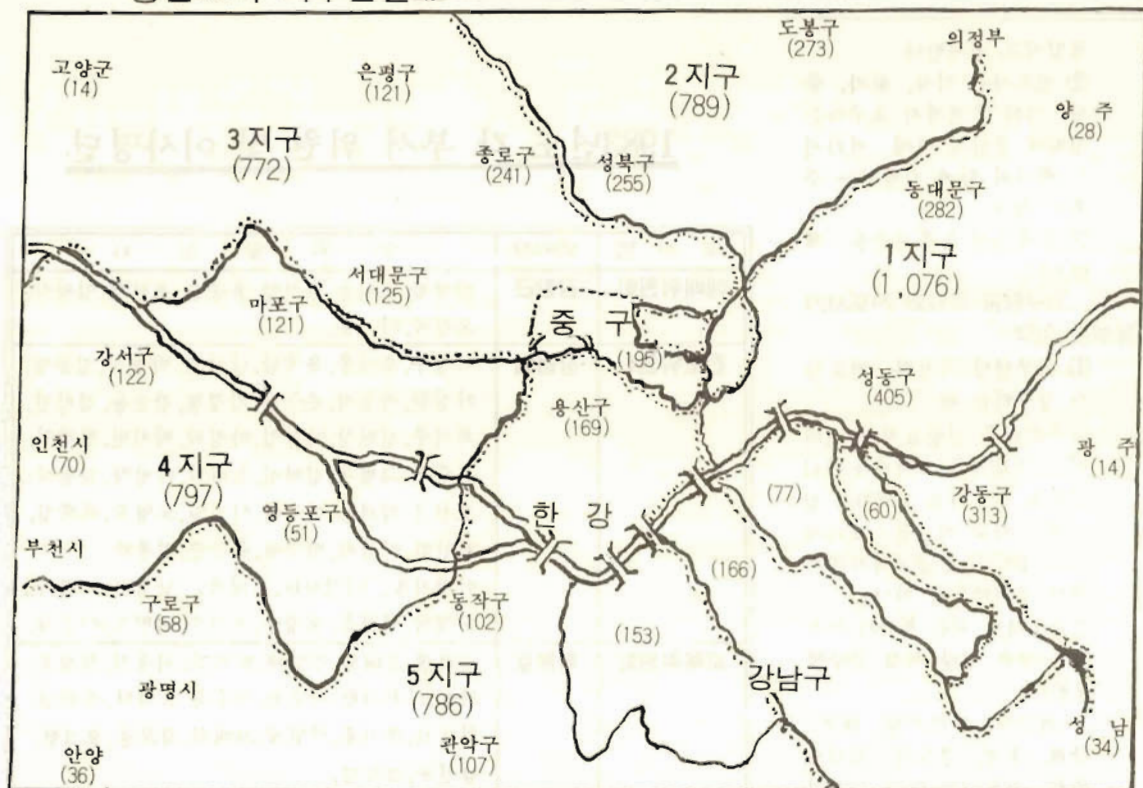
ii. 구역장의 임무

협동구역하에는 여러 구역을 설치, 매구역마다 구역장을 두되 구역장은 한구역 (5세대)을 맡아 책임 심방 선도한다

1983년도 각 부서 위원 및 이사명단

부 서 별	위원장	위 원 및 이 사
예배위원회	김창근	한영철, 오치용, 안석열, 윤종순, 조현명, 임광식, 오진국, 이 훈,
전도위원회	장정일	이양우, 오치용, 유국남, 남성호, 박동실, 김동열, 이상환, 서동석, 손동운, 김경철, 강순용, 김방진, 최석주, 신현상, 이창업, 마성락, 박치민, 한경일, 홍중섭, 고병욱, 김영삼, 오태희, 이병학, 임광식, 조선근, 박재용, 이옥녀, 이신일, 노영숙, 백죽실, 전인화, 박선자, 민순애, 유감순, 김봉재, 이명자A, 이명자B, 최태옥, 남정애, 고경자, 황정숙, 명정옥, 오정수, 손경수, 권명옥, 이갑재,
교육위원회	최봉호	김차생, 오태희, 김영개, 박치민, 서동석, 정광호, 최상규, 최성현, 강은원, 박승준, 윤인현, 김광진, 하대선, 송기홍, 박인세, 최대원, 강모용, 오정현, 남선우, 엄필성,
심방위원회	김원남	김한훈, 이병학, 김경철, 서일영, 안익태, 오정현, 송기홍,
재정위원회	이웅선	오진국, 우기전, 한경일, 오정현, 박치민, 정봉조, 김영남, 문옥순, 이혜숙, 이영세,
건축위원회	김기정	윤종성, 임광식, 이창업, 최석주, 이웅선,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최상규, 강모용, 하대선, 안윤진, 정선화, 원도하, 이현실, 오희명, 이옥녀,
자산관리위	윤종성	윤종순, 정석태, 박창수, 김원선, 고병욱, 안익태, 노광현,
동산 및 기도원	오진국	한명옥, 신현상, 김은호, 강순용, 박창수, 노광현, 최상규, 오정현,
총 무 국	최석주	이웅선, 이태규, 이 훈, 김광진, 강은원, 최성현,
인사위원	조현명	김원남, 김창근, 윤종성, 최석주, 이태규, 이창업, 김기정, 한명옥, 김영개,
감사위원	윤종순	정석태, 고병욱, 신현상, 서동석, 윤인현, 손동운,
성경연구원	김차생	김기정, 이웅선, 김영개, 정석태, 오태희, 윤명식, 최성림, 이옥녀, 김상순,
출 판 국	윤명식	이세열, 김영구, 이성근, 윤영탁, 조현명, 김차생, 우기전, 이 훈, 정은표, 이형수, 오태용, 안석열, 장 수,

충현교회 지구분할도



① 구역장은 구역예배를 인도(구역공과로)하며 매주 금요일 구역원을 심방한다. (단 구역 형편에 따라 다른 날도 할 수 있다)

② 구역장은 권사, 집사, 권찰, 남녀 구별없이 구역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자가 구역장이 된다.

③ 구역장은 등록 심방을 책임지고 심방하고 교역자의 심방이 꼭 필요로 여겨질 때 담당 전도사에게 요청한다.

(3) 심방방법

i. 대심방

연 1 지구 1 회 심방하되 3월 첫 화요일 부터 시작한다. 가급적 6 월말 까지는 마치도록 한다.

ii. 노인심방

연 1 회 1 월에 매 지구에 거주하는 70 세 이상 노인을 방문, 위로,

인도하며 심방한다.

iii. 요청심방

구역일군 및 성도들의 구두나 전화 요청심방에 응한다. 가급적이면 요청심방에 중점을 둔다.

iv. 상주심방

심방부 교역자들이 항상 상주하여 심방에 응한다. (교역자들이 각각 사무를 분담했을 때 상주 가능)

3. 구역분할

(1) 지구는 5 지구로 분할한다.

i. 지구분할

① 새성전을 중시하여 부채꼴 식으로 나누되 대도로를 따라 분할한다.

② 행정구역에 따라 분할한다.

③ 새성전을 중시하여 반부채꼴 식으로 나누되 대도를 따라 분할하고 방배에 잠실, 시영 아파트 단지를 5 지구

분할한다.

ii. 지구분할도표

1983년도 지구별 세대현황
(1982년 10월 현재)

1 지구 1,076세대
2 지구 789세대
3 지구 772세대
4 지구 776세대
5 지구 807세대
계 4,220세대

1 지구 : 강동구 313세대
성동구 405세대
동대문구 282세대
성남시 34세대
초월 14세대
양주군(교문, 성내) 28세대
계 1,076세대

2 지구 : 의정부 도봉구 273세대

성북구 255세대
강남(청담, 대치) 60세대
신당동 147세대
황학동 15세대
쌍림동 39세대
계 789세대

지구편성 및 교역자 배정안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교역자	남	1명	1명	1명	1명	1명
	여	2명	1명	1명	1명	1명
세 대 수		1,076	789	772	776	807

3지구: 은평구 121세대
고양군 14세대
서대문구 125세대
종로구 241세대
잠남구(압구정, 삼성동, 학동) 27세대
중구장충동 110세대
을지로 48세대
저동2, 장위1, 장교2,
주교17, 방산2, 예관10세대
계 772세대

4지구: 김포, 인천 49세대
강서구 122세대
마포구 121세대
영등포구 51세대
중구 목정동 53세대
충무로 83세대
인현동 56세대
초동 4세대
오장동 39세대
광희동 32세대
신사, 논현, 역삼, 도곡,
개포, 내곡, 외곡 등 166
세대
계 776세대

5지구: 시흥, 과천, 안양, 수원 36
세대
광명 21세대
구로동 58세대
동작구 102세대
관악구 107세대
용산구 169세대
중구 필동 98세대
남대문 6세대
회현 10세대
남산 5세대
퇴계 2세대
에장 7세대
남창 6세대
남(5지구분) 153세대
서초, 우성, 무지개, 선
동아 26세대
계 807세대

4. 지구담당 전도사 및 협동 구역장관 구역장 교육과 모임.

(1) 모임

매년 2월, 5월, 9월 6차 지구
주교17, 방산2, 예관10세대
별 모임을 갖는다.
매년 1월, 2월 2차 구역장 특
별 교육 훈련 시간을 갖는다.

(2) 교육

i. 구역담당 전도사

- ① 매년초 실시하는 본교 단
기수련회 교역자 교육자 훈
련을 받는다.
- ② 성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구역요원 공부에 응한다.

ii. 협동 구역장

- ① 매년초에 실시하는 본교
단기수련회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심방부에서 특정 실시
하는 훈련과 교육을 받는다.
- ② 지구별 또는 권찰 모임시
에 받게되는 교육에도 응한다.
(지구 별 모임 2월, 5월,
9월)
- ③ 성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성경공부반에 응한다.

iii. 구역장

- ① 매년초 실시하는 본교 단
기수련회시 교육과 훈련을 받
으며 심방부에서 특정 실시하
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 ② 지구별 또는 권찰 모임시
에 받게되는 교육에 응한다.
- ③ 성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성경공부반에 응한다.
- ④ 구역공부를 위한 구역장
성경공부에 응한다.

iv. 심방부 전 교역자

- ① 심방부 전 교역자는 1년
1차 국내 교회탐방을 한다.

6. 특별업무 절차

1) 심방위원회 심방위원장은 지
구나 구역 제한없이 심방할 수 있
다.

2) 심방위원회 심방위원장은 지
구담당 전도사나 기타 다른 전도사
와도 성도의 가정을 심방할 수 있
다.

3) 혼인, 중환자, 노인의 경우 시
급을 요하는 학습 세례 입교에 대
하여, 혼인을 시급히 해야하며 중
환자나 노인 그리고 교회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학습 세례 입
교를 원할 때 가급적 장로와 같이
하여 학습 세례 입교를 주되 경
우에 따라서는 목사 단독으로도 주고
보고한다.

1983년 중요행사(생략)

위와같은 본교회 사업계획을 달
성, 질적 양적 부흥을 이룩하여 5
대목표인

1. 전국일군 양성
2. 북한선교
3. 민족복음화
4. 세계선교
5. 새성전 건축

등을 달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
며 우리 민족과 세계 만민에게 하나
님의 축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83년의 선교자세



오 치 용 목사

(선교부 지도)

I. 서 언

1983년도 선교의 종합구상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83년도의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았으면 한다. 주께서 준비하신 선교의 종합구상을 받기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의 선교에 동참할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983년은 우리 총현교회의 선교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해이다. 교회설립 30주년과 아울러 선교 15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또한 새성전이 전과 아울러 선교센터의 운영 등 여러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실로 198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선교장래는 결정적인 성장요소를 얼마만큼 지니게 되느냐가 평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983년 한 해 동안에 총현교회의 세계선교를 위해 면장래까지 내다보면서 중추하고 효과적인 "선교적인 장치"를 갖추어야 되고 이 선교적인 장치를 최대한 잘 설치함으로써 적어도 4~5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김창인 목사님을 통한 세계선교가 세계 선교역사상 또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장식하면서 윌리엄·케리, 허드슨 태일러, 캐머런 타운젠트, 도날드 맥가브런 등 이후의 놀라운 선교세대가 발전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함께 총현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

몇가지 상고하기 전에 거듭 다짐해 보거니와 1983년은 김창인목사님을 통한 세계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인줄 믿고 우리는 다음 몇가지 자세를 새롭게 해보아야 할 것이다.

II. 선교하는 교회가 지닐 10가지 자세

1. 하나님의 선교비전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선교의 계획을 알리시는 것이므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성경의 선교" 이것은 선교하는 교회의 기본 교과서이다.

2. 하나님의 종의 선교비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종은 선교의 나팔소리이다. 교회는 그 나팔소리를 잘 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총현교회 성도들은 누구든지 당회장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자세가 있어야만 선교는 발전할 것이다. 1983년에 울려 퍼질 나팔소리를 잘 듣고자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3. 세계와 선교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크게 흘러가고 있는가? 세계 선교의 주요한 흐름은 어떤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가? 세계는 어떠한 선교운동을 요청하고 있는가? 우리 총현교회는 이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교회에 자료실이 운영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선교정보자료가 수집·분석될때 성도들은 선교정보자료를 관심있게 모아 제공해 주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민족과 선교의 관계를 우리의 터전으로 삼아야 한다

선교하는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잘못은 지나친 민족의식을 갖는 것도 있으나 한편 민족의식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선교는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이며 복음화된 민족과 함께 하는 것이며 세계열방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이다. 민족의 바탕을 잃은 선교는 그 힘이 약해지는 것이다. "민족과 선교!" 이것은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되뇌고 되뇌어야 할 구호인 것이다. 83년은 특히, "민족과 선교"에 있어서 우리 총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결심을 갖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5. 선교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

시편 81:10절 말씀과 이사야 54: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특히 83년에 선교의 장막터를 크게 넓혀야 한다. 먼저 우리는 마음속 비전에 있어서 온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큰 비전을 갖고 “세계를 덮는 선교”를 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선교는 입을 넓게 열지 않고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를 위한 인재와 재정과 자료와 설비와 교육 훈련 등에 대한 투자는 진정 “믿음에 의한 제산법(Faith Mission)”을 채택하지 않고서는 과감하게 추진할 수 없다. 선교는 다른 일과의 균형사업으로 생각하기보다 “다른 일의 선두사업”으로 생각해야만 비로소 제기능을 발휘하는 천부적 우월성(Priority)이 있다.

6. 선교에 앞장서는 성도 되어야 한다

선교는 “선두사업”이다. 한 교회의 성도들이 세계선교를 선두사업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모든 점에 있어서 “선두교회”가 된다. 주님은 우리의 선봉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주님 따르는 선교에 앞장 서기를 지체할 필요가 없지 않

는가? 선교는 선두사업이므로 선교를 선두에 내세우는 교회를 세계에 선두로 세우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결단하에 세계선교사역을 앞세우는 교회만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역할을 계속 감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83년도 한 해가 짧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 세계선교사업 수행을 우선적으로 하는 성도의 생활자세를 확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

7. 선교를 배우는 일꾼들이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총현교회는 선교교육기관으로서 주일학교에 선교부를 두고 있다. 여기서 중학생 이상 대학·청년반 장년반을 운영하며 연구반·영어·중국어반 등을 운영하면서 선교교육을 시키고 있다. 4년에 걸친 그동안의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이 선교부와 관련을 가져왔다. 선교를 배우는 사람들, 이들이 얼마나 아쉽고 중요한 선교사역의 저력이요 자원인가를 앞으로 몇년 지나지 않아서 실감하게 될 것이다. 선교부의 교육내용은 전교회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각각 임무를 분담하면서, 우리는 선교부에서 배우는 일이 귀하고 그 배우는 일꾼들이 귀한 줄 알고 과감하게 모든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8. 선교일선에 나아 갈 일꾼들을 생명같이 길러야 한다

주일학교 선교부는 선교에 대한 홍보교육을 위주로 한다. 물론 선교사 내지 선교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대학원내 뉴지 선교사훈련원을 운영하게 될 경우 여기서 육성되는 사람들을 우리의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세계선교의 일선에 설 사람들, 성도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선교일선에 설 사람들이니 생명같이 사랑해야 한다. 목회자선교사, 평신도선교사, 평신도선교인, 선교전문가 내지 선교정책자, 선교학자, 선교직원 내지 선교실무자 등,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일선에 설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최선의 후원자가 될 자세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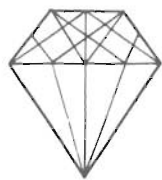
9. 모든 성도들은 의무적으로 해외복음선교회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마태복음 28:19절과 사도행전 1:8절의 선교대명령아래 있다. 선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함은 성도이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요 선교

창업 50년의 신용과 전통!

남 문 당 金正泰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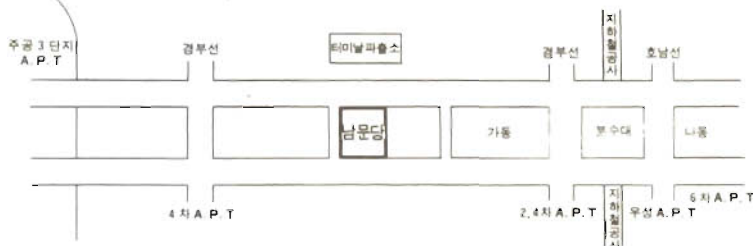
약 도 (지하상가)



금은시계

터미널 강남지하상가

599-3776



의 명령을 받은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외복음선교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매년 1월에 선교주일을 지키며 선교회원 결심을 하는 그때뿐 아니라 평시에도 충현성도들은 선교의 결심의 기회를 해외 복음선교회원으로 등록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해외복음선교회에는 실행위원들이 있고 사무조직이 있어서 회원들에 대한 교제관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해외복음선교회는 충현성도들 뿐 아니라 기타 교회 내지 성도들도 협력회원으로 받아들여 선교의 뜻이 있으나 길을 원하는 분들에게 중개자 내지는 안내역할 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도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본회를 통해서 선교헌지에 선교비 등을 보내고 있다.

10. 국내외의 복음적인 선교 동지들과 협력하며 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국내에 주요한 선교기관 내지 선교하는 교회들을 두고 계시다. 또 해외에도 많은 복음적인 선교사역기구를 두고 계시다. 우리는 국내외의 이같은 선교동지들과 협력하고 또 힘있는대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얼마전에 동서선교연구개발원에서 우리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는데 이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다른 여러 선교기관에서도 우리에게 자료를 보내주고 있다. 이들은 다 선교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자료를 우리는 공급받고 또 공급해주는 협력이 필요하다. "선교는 곧 협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적인 선교동지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만은 안된다. 우리는 국내외의 선교기관들을 재정지원하는 노력도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선교후원과 넓고 인내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III. 결 언

내년 1983년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 시카고의 「윗튼」 대학에서는 윗튼'83 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의 주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I will build my church)인데 이 대회에서 세계증산증선교의 대표적 성장교회로 충현교회가 지목되었고 이에 대한 주제강연을 당회장 김창인목사님께서 의뢰해 왔다. 이종윤목사님과 로봉린박사께서 같이 발표하시게 되는 이 대회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선교가 세계복음주의 동지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성실한 봉사자의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세계는 우리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는 충현의 선교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는 김창인목사님의 선교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83년도에 그 모든 요구에 우리가 새롭게 응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다.

□ 신간안내

신 성종 박사 편저

엠마오 주석

신약성경 및 시편

국판·55미색모조·850면·양장
금박·금도련·점음출판사간



제목이 말하는 것과 같이 성경에 주석을 붙인 책이다. 이런 종류의 성경은 미국에서는 「STUDY BIBLE」이란 이름으로 10여종이 나와 있다. 충선대학 대학원 교수이며 「엠마오 성경연구」 저자인 신성종박사가 이를 정리하고 자신이 쓴 「신약총론」 및 「계시록강해」 등을 엮어서 거의 매절마다 자세히 친절하게 주석을 달았다. 주석의 내용 및 친화적인 배경도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건전하게 다루어져 있어 걱정없이 누구든지 보아도 좋게 성경을 읽는다.

이처럼 자세하고 친절한 주석외에도 이 성경에서는 여러가지로 새로운,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

성경본문은 개역성경을 사용하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강단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책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요요〉 부분을 넣어 책의 배경, 저자문제, 중요성, 특징 등을 자세하게 다루었고 매 절마다 새로운 행(行)으로 시작하여 성경구절을 찾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내용뿐만 아니라 편집과정에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을 좌우로 넣고, 가운데에 관주

를, 하단에 주석을 배열하였고, 특히 의의가 있는 것은 모든 내용을 가로쓰기 [橫書]로 하여 읽기 나가기에 편리하다는 것이다. 또 성경적인 용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자를 병기(併記)하므로 문자적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가로쓰기에, 관주, 한글과 한자 혼용된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일이다.

그외에도 책 뒤에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내용의 부록(주제별 성경속인, 간추린 성구사전, 기독교 교리의 개요, 성경형성과정 등...)을 첨가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많은 양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휴대에 간편하도록 (신·구약합본의 경우 현재의 성경보다 0.7cm 두껍다) 한 점은 큰 장점이리라 하겠다.

이 책은 일반책이라기보다 「주석」에 포함된 새로운 성경인 것이다. 이 성경으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경연구 및 성경공부의 열기를 한층 더할 것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바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김 연 이 전도사

깊은 배필 없는 아담 불완전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수술하여 갈빗대 취해 내셔서
그 허리에서 하와를 만드셨다네
아담이 눈 떴을 때 하와가 눈 떴고
아담이 거니는 곳 하와가 함께 었어라
하와는 아담의 살중의 살

신부없는 그리스도 충만치 못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잠재우시고
창으로 수술하여 피흘림으로
그 허리에서 교회를 탄생케 했네
그리스도 부활할 때 교회가 눈 떴고
그리스도 행하시는 곳에 교회가 함께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중의 뼈

우리의 인성이
말구유에 성육신 하신
아기 예수 안에 있었고
교회의 새 생명이 부활의 씨
아기 예수께로 부터 왔다고
아기 예수로부터 우리의 새 이름이 주어졌다고

그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며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네
그가 신부를 사랑하여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도 몸된 교회 사랑한다네

모든 교회들이여! 신부들이여!
영광을 돌리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세 아기 예수께



줄을 잘 선 인생



김 영 구 목사

(출판국 지도)

군대에서 잘 쓰던 말로 “...줄을 잘 서야...”라는 말이 있다.

줄을 잘 섰더니 어려운 사역을 면하고 쉽고 편한 일 (군대에서는 이르기를 특과라고 하지만)을 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그러하고 줄을 잘 못 섰더니 그 줄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가 고(苦)로운 과업을 부여받아 종일 고생스러웠다는 경우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줄을 좀 잘서 보려고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다가 서 보기도 하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모처럼의 눈치작전도 허사로 돌아가고 역시 그 날도 줄을 잘못 선 대가를 똑똑히 감수해야 했던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그날 특과에 처하게 된 동료들은 싱글벙글하며 우쭐해 보이며 왈(曰) “보병군인은 줄을 잘 서야 돼!” 하는가하면, 반면에 특과에 떨어지지 아니한 부류들은 으쓱대는 동료들의 “잘 잘 서기” 이론에 공감을 느껴며 쓴웃음을 짓곤 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줄 잘 서기”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얼핏 생각하면 “줄 잘 서기”원리는 “지혜로운 처세와 그로 말미암은 행통”의 원리같아 보인다. 그

래서 줄 잘선 결과를 누리는 자들이 으쓱하며 뽐내는 모습도 보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다. 아무리 “줄 잘 서”보고자 할지라도 결과는 자기 생각으로 되어주지 아니하고 기대 밖의 불운(不運)을 맞보게 되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라!

자기가 현명하고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잘 된 결과는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으로서 전적으로 외부적인 그 무엇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다.

성도들이란 어로 보전대 “줄을 잘 선 인생들”임을 생각지 아니할 수 없다. 자기들이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성도의 반열(班列)에서 개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민주국가의 백성이 된 것도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줄을 잘 선 인생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우리가 줄을 잘 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자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지혜, 근심, 열심과 충성은 미미한 것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총과 역사의 결

과인 것이다.

우리가 신앙의 노선(路線)에 있었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기를 원하는 열심 있는 천국백성의 노선에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 일인가?

총현교회에 와서 새로운 각도로 이 교회가 줄을 잘 섰다고 느끼는 점은 여러가지다. 우리 교단 내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가장 큰 성전을 짓는다는 최상급이 붙어서라기 보다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충성과 열심”을 바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교회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너무 허비(?)가 많은 큰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성전건축도 더디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총현교회는 개교회 본위로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강하게 느낀다.

하나님이 시급히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향한 책임을 느끼고 일하는 선각자, 선구자와 같은 교회임을 느껴져 한다.

하나님을 위해, 큰 사명 받고 감당해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단없는 전진을 해나가는 총현의 신앙의 대열에 서게 된 나라도 역시 “줄 잘 선 인생”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해외선교지 ·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 - 서만수 선교사

정소라 선교사님께서 귀국중에 받은 사랑과 종합건강진단등에 베풀어 주신 호의를 감사하면서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힘있게 일하시겠다는 안락의 편지를 보내주시다. 장구적이고 영구적인 기쁨을 마련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몸 안가리고 수고하신 두분 선교사님 내외분의 건강이 매우 염려스러운데 이를 기도로 바꾸어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사옵시요. 또한 명령이신 선교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실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내외분의 건강과 영육간에 강건하심을 위해.

② 할렐루야회관의 신속한 대지 결정과 건축 및 인도네시아 선교의 영구적인 기쁨 마련을 위해.

③ 현지인 사역자 및 선교센터 직원들 기타 선교의 동역자를 위해.

④ 한인교회 성도들을 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더욱 부흥발전하면서 선교사역에 활발히 동참하도록.

○애굽 - 이준교 선교사

① 9월24일 애굽 복음주의 카이로 노회에 참석코 목사, 장로들과 교제를 나눔.

② 자라이브 닝마주이 마을을 방문하고 구제물 55점을 전달하고, 아스야프교회, 자이툼교회등을 방문코 설교.

③ 애굽복음주의 교단 총무사무실을 방문하고 지교회 지원금 전달함.

④ 이 선교사님 자녀입학문제로 문교성 고위 책임자를 방문하고,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교장 켄·로리 머박사를 만나 미국인학교에 관해 상의하며 교장 조지·멜로이씨를 만나 협의하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현지인 학교인 게지라 언어학교 제7학년에 입학되었습니다. 할렐루야!

⑤ 수단 목사, 장로를 위한 수양회를 1983년 1월 하순경에 갖기로 하고 이선교사님 및 애굽인 목사 2명이 강사로 수고하기로 합의함. 또한 10월 20 일에는 수단 청년으로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한 아이리·망가샤군의 아세아 연합신학원 입학을 위한 서류를 발송함.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후 수단선교를 위한 현지사역자로 삼고자 합니다. 수단선교와 망가샤군을 위해 특히 기도해주시기바람.

⑥ 신학생을 위한 의료 장학금을 애굽복음주의 신학교 개학식에 참여하고 전달.

⑦ 한국 총영사관 주최 개전절 리셉션, 재애굽 한국거류민회 총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의 영육간에 강건하심과 풍성함.

② 석신군 입학제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욱 형통하시기를 위해.

③ 카이로 한인교회 및 애굽선교를 위하여.

○호주 - 김태현 선교사

선교사업 활동비를 수령하시고 사의 편지를 보내오심.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과 특히 사모님의 건

강을 위해.

② 호주 선교사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칠레 - 유재일 선교사

① 10월 15일 칠레 어린이날 축하예배를 시경찰국 청사에서 전국 고아원의 70명 모범어린이, 39명이 원장, 경찰 장성 및 경찰 총장부인 및 한국 공관, 주재 상사원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거행함. 텔레비전 및 신문에도 활동이 소개되고 경찰 월간지에도 다루어지는 등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행사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선교 활동에 여러모로 유익이 될 것입니다. 2부 순서에는 고전무용과 태권도 시범을 보여 한국인의 이미지를 심고 칠레 어린이들의 무용과 합창으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사후에 경찰 총장에게서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② 10월 24일에는 칠레어린이 주일학교가 95명으로 부흥되어 유치부를 분리시켜 효과적인 지도를 도모하였고 칠레 어린이 찬송가를 제작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③ 칠레 청소년을 위한 중고등부 설치가 시급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④ 교포 선교를 위해 신앙서적 헌것 모으기 운동을 부탁하면서 이를 위해 믿고 책장도 맞춰놓으셨다고 합니다.

⑤ 칠레 성서공회 총무 루이스·로조 목사 및 요한 칼빈신학교 패드로·베가 목사와 각각 친교를 나누고 협력활동 강화하시다.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과 한인교회 및 교포의 생활의 부흥과 발전위해.

② 생활비보다 더 긴급해진 선교활동비가 더욱 잘 충당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금하기 위해.

③ 칠레어린이찬송가 제작 및 중고등부 설치와 칠레 현지인 선교사역의 확장과 발전 및 한국인의 좋은 이미지 형성위해.

○파라과이 - 김재창 선교사

한인교회 사무장로이신 김정수장로께서 본부에서 발송하는 물품과 소식을 송로를 부담하시면서까지 수령하여 11월 8일 출국하심,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의 가족의 건강과 자녀교육 문제위해 특별기도.

② 파라과이의 경제안정과 교포사회의 발전 및 복음사역의 열매 풍성하도록.

○서독 - 육호기 선교사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사역수행 중의 특별한 안전위해.

② 선교관의 신속한 운영과 한독찬송가의 조속한 출판위해.

③ 유럽선교의 계속적인 발전과 후속 선교사의 파송위해.

○벨기에 - 김성완 선교사

① 발과 같은 역할을 하던 선교차량이 폐차토록 결정됨. 버스나 지하철, 전차, 기차등을 이용한 선교활동은 시간, 정신, 능률 모든 면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게 갈수없는 지역등에서 부딪히는 시간적, 지역적 제한은 인내에 한계를 느낄정도라고 합니다. 특별기도 부탁드립니다.

② 차남 지훈군이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자기 반에서 1등을 하여 위로받았으나 선교사님의 건강이 습기차고 자주 오는 비에 수반한 이상한 주위로 인해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③ 언어문제만 해결되면 국제인교회가 가능함.

④ 현재 사용하는 교회가 비좁아 장년과 어린이가 함께 예배보는 형편이므로 교제를 나눌 장소가 없음.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가족 특히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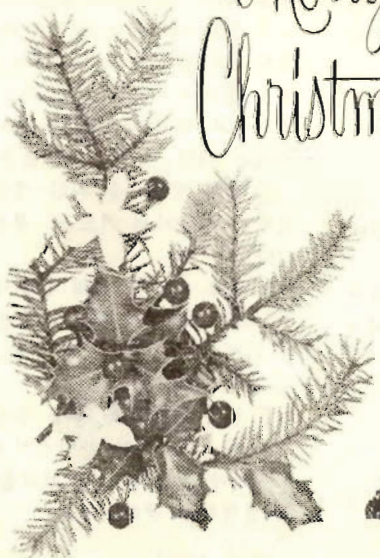
② 선교차량이 조속 구입 (중고차는 2천달라, 새차는 4천달라가 소요됨)위해.

③ 좁은 교회에서 넓은 교회로 신속히 이전해 활발한 교회부흥 이루어지도록.

○인도 - 엘리야 겔간 선교사

① 스리나가르에서 9월 1일 ~ 9

Merry Christmas



선물! 그것은 곧
사랑과 기쁨의 전달입니다.

성탄축하케익

2호·3호·4호·5호·6호·2-3단

●데크레이손 케익 ●롤 케익 ●파운드 케익
●판 카스테라 ●스폰지 케익 ●앙과자 ●빵
*단체주문봉사 *전화주문배달 *사은권특별취급

●드리는 기쁨-받는 감사

파리제과

●종로4가 763-7930-555-7765

대표 박승준 장로

밤에 찾아온 의원

(요3:1-21)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산헤드린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는 동료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한 것이며 또 예수님과 은밀히 만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에 큰 매혹을 느낀 진지한 사람 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은유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이요,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결심을 내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그가 듣지 않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 그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요19:39) 가져다 예수님의 몸 위에 바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은밀한 신자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가 완전히 깨배당한 갈보리산장에서 못박힌 주님께 보인 용기를 높이 살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월 5일까지 열린 티벨 기독교인 동맹 총회에 참석하여 미국인 강사의 통역도 담당하시고 인도와 네팔 국경에 나누어 사는 티벨 부족 속에서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받으며 함께 은혜를 나눴.

② 우루리에서 열린 국제 선명회에서 주최하는 준비대회에서 기독교인의 성장전망에 관한 유익한 강의를 듣는등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함.

③ 카길의 사역은 전도면에선 회교도 형제 가운데서는 부드러운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나 수동식 연사공장의 여자 기술자가 아버지의 병환으로 일할 수 없게되어 어려움을 받고 있음, 다른 좋은 기술자 보내주시도록 특별기도 부탁드립니다.

④ 도서관과 청소년 클럽을 곧 열게 되는데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⑤ 수루계곡에서 물이 천천히 흐르는 지금 조그만 뚝을 쌓아놓지보전을 통해 농부들을 돕고자 하는데 10월 중순까지는 끝날 것임.

⑥ 내년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암스델담에서 83대회가 빌리·그래함목사 주관하에 열리는데 참석을 하도록 초청을 받았으나 여행경

비를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요청해서 총현교회 본부에 청원을 해왔습니다. 선교사역의 이해를 위해 사모님과 동행했으면 하시는데 위해 특별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① 하나님께서 선교사역의 넓은 부분을 알게하시는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행동을 위해.

② 특히 스리나가르, 수루지역의 전도사역을 위해.

③ 내년 암스델담 83대회 참석경비 해결을 위해.

○일본-유병세·이윤호 평신도선교사

본교회 이실호집사님의 지도를 받고 함께 편지를 보내준 오윤걸, 남진희, 한은혜 어린이를 통해 크게 위로를 받으시고 감사와 기도의 편지 보내주시다.

① 히로이즈미 교회의 예배인도와 이권사님의 부인 성경만 인도, 히로오교회에서의 설교와 점심식사를 통한 코이노니아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② 북해도 지구 메노나이트교과부흥회에 교인 3명과 함께 참석하여 많은 이해를 얻고, 마기선교사님과

의 코이노니아등으로 동역 선교사들과 유대를 계속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 내외분의 영육간에 하나님사역 충성에 강건하심과 권능의 역사와 행통하심 주시도록.

② 본국 자녀들위에 하나님은혜주시도록.

○본부 소식

① 정소라 선교사님(서만수 선교사 사모님)께서 종합진단 마치고 친지방문하시고 교회의 여러 부서와의 교제를 나누시고 서만수선교사님 건강과 현지 선교사역을 위해 예정보다 좀 일찍 10월28일 비행기편으로 귀임하심.

② 앰버서더호텔에서 점심식사하며 본 선교회장 최석주 장로님과 지도교역자 오치용 목사님들 파라파이 한인교회 김정수 장로님과 환송점대담을 나눔.

③ 벨기에에 남아계시던 박용삼 선교사님 가족은 15일 귀국 예정이심.

④ 평신도 선교인으로 수고하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계신 김동표, 안명수 형제께서 현지소식과 교회 및 성경공부의 부흥과 발전을 자세히 알려보내오심.

어느 성도의 죽음



박 일 희 집사

제법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작년 8월 하순경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전화 벨이 요란스럽게 울리자 나는 단잠에 취한 상태에서 더듬더듬 수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집사님 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홍제동 ○○집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집사님, 지금 빨리 좀 와주셔야겠읍니다. 자꾸만 집사님을 찾고 있어요. 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남편의 목소리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답을 하고서 한참동안 물끄러미 수화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와의 만남의 순간들이 영상 처럼 눈앞을 스쳐갔읍니다.

그는 위암으로 네번 수술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50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절정만이 당신이 사는 길이에요.”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조용히 권고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루 하루 다가오는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렇게 3주를 보내고 그다음 날에 이런 슬픈 소식이 전하여져 온 것입니다.

내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 식구들과 딸과 사위 친척들이 함께 모여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찾던 박집사님이 오셨어요. 정신 좀 차려봐요.”

남편은 인사 대신 자기 부인을 흔들면서 안타깝게 소리쳤읍니다.

나는 조용히 묵상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는 홀로려져가는 동공에 희미한 빛을 내면서 알아보는듯 시선을 마주치며 내 손에 연약한 힘을 가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정말 엄숙한 시간 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귀에다 입을 가까이 하고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읍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를 연발하면서 그의 얼굴은 환하여지고 그의 입가에는 갓난 아이처럼 생글 생글 미소를 띄우며 죽음 앞에서 보기도 문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식구들도 울음을 잊어 버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읍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나요?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자못 의심스럽다는 물음이었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죽는 모습이라고 힘주어 말했읍니다.

나는 그녀의 몸에 손을 얹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후 다시 한번 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읍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마음 속으로 기도하라고 하였더니 그는 다시,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생글 생글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남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인의 얼굴에 자기 뺨을 비비면서,

“여보, 당신 이제 마지막 차 탔지. 이렇게 웃으면서 마음놓고 떠나라구. 나도 다음 차 타고 당신 뒤따라서 갈게요”

그는 마침내 다시 한번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실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가 손을 들더니 자기 남편을 밀어 붙이고 오히려 나를 향하여 내 두손을 꼭 잡고 주님을 부르면서 저서이 눈을 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내 손을 붙잡고 죽어가는 한 여인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고 먼 것인사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일생의 반려자로 자기를 사랑하여 주신 남편이 그렇게도 애타계 부리며 비통한 제님의 결별사처럼 위로하고 있건만 왜 그는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적 반응을 나타냈을까?

그것은 그가 얼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귀중한 믿음을 그 속에 소유하고 있기 까닭에 믿음 없는 남편은 이미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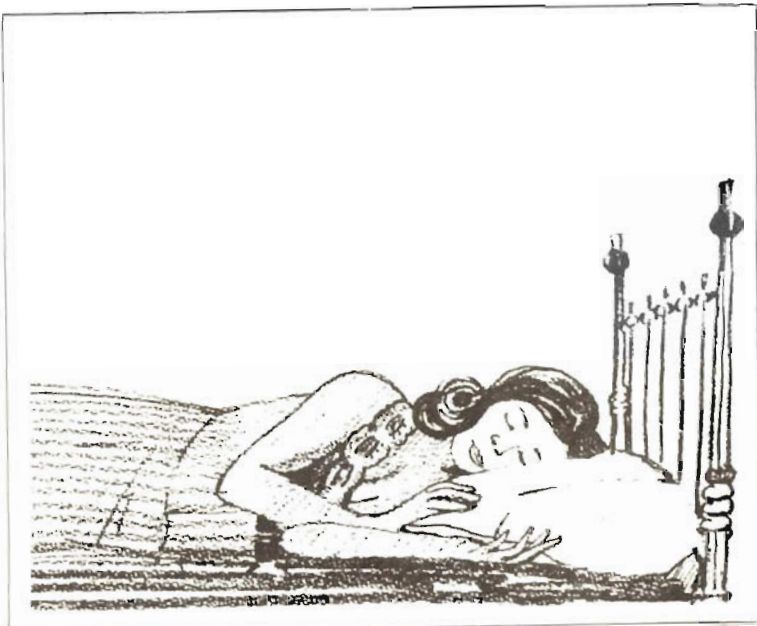
때문에 남편의 마지막 주는 말이 다 하더라도 위로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나는 비록 남편의 관계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때, 오히려 위로를 받으며 구원의 기쁨에 "아멘"을 연발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때는 믿음의 형제가 내 곁에 있을 때이다" 라고 칼빈이 말한것 같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곁에 있어줄 것을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시116:15)

여하튼 그는 이 복된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그 남편과 식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믿음의 형제된 나를 한 증인으로 불러 세우고 의지하고 죽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살면서



쓰다듬어 눈을 감겨 주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그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유언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젯밤에 다들 모이라고 하더니 예수 믿고 교회 나가 달라고 말한 다음, '내가 죽거든 박집사님께 부탁드려서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러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간 어느 교회에 나가셨나요?"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바로 저쪽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겨우 세 번 나갔기 때문에 목사님도 잘 알지 못 하지요"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 교회가 H교회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찾아가 뵈고 이 장례문제를 의논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쾌히 승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원하던 바 유언대로 목사님 앞에서 온식구가 예수 믿기로 약속하였고 목사님의 주례로 장례식을 엄숙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옛날부터 있는 여관집이고 땅위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잠시 잠깐 다녀가는 나그네들인데, 이 행로 인생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꼭 같이 오는 법, 그러나 믿고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가려질 터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옴……"(전 7:1)

"성도의 죽는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바로 이 여인은, 이 복된 죽음을 죽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멀리 멀리 사라져가는 장례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마12:50)

나는 과연 이 여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믿음의 형제된 부분을 다한 것일까?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여 보며 그러나 아직도 마음 한 구석이 텅 빈것을 느끼면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기도회 가져

— 1백주년 기념사업위 —

한국 기독교 1백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지난 11월11일 오후 7시 영락교회당에서 있었다.

동 기념사업위 부총재 박성겸목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성갑식목사의 기도, 성경 시편 126편 봉독, 영락교회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부총재인 홍현설목사가 「영광과 고난의 선교 1세기」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홍목사는 설교에서 「세계 기독교사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기록에 남을만한 것이며 경이와 감탄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고 「한국에 처음 복음이 뿌려질 당시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여 우리 민족의 친구가 되었고 일제 치하에서 항일 투쟁을 함께 해왔음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말하고 「청교도적인 신앙과 연중무휴의 새벽, 철야기도회, 십일조 생활을 통해 민족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기독교가 되자」고 강조했다.

총재 한경직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선교 2세기를 앞두고 지난 1백년간의 교회를 되돌아 보고 1백주년을 맞는 기념사업을 펴는 이 사업 위에 전국 교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다.

한국장로교 협의회 총회

— 교단간 긴밀한 사업 협력논의 —

한국내 5개 장로교단의 협의체인 「한국장로교 협의회」는 지난 11월9일 오전 11시 예장 통합총회 회의실에서 제3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서완선목사(예장 고신 총회장)를 선출하는 한편 각 교단간의 유대를 긴밀히 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예장 합동, 통합, 고신, 기장, 대신 등 5개 교단 22명의 대표가 참석한 동 회의실에서 회원교단들의 지도자들이 자주 모여 대화를 통해 점진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업을 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새로 선임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서완선(고신), 부회장 김현중(합동), 강명찬(기장), 김세창(대신), 임인식(통합), 서기 김형태

(통합), 회계 오건(기장), 감사 배태준(합동), 운영위원 박성만, 이의호, 최해일, 이형용, 김상근

재일 한국교회 위해 현금

— 기감 제15회 총회열고 —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10월27일~29일까지 열린 제15회 정기총회에서 5개 연회 감독을 선출하고 서병주 목사를 감동회장으로 선임했다.

각 연회대표 761명이 등록한 동 총회는 개회예배에 이어 오경린감독의 보고가 있었다.

동 보고에서 감리교단은 2천4백14교회에서 76만7천3백24명의 교세임을 밝히고 재정수입이 3백24억3천8백여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감리교단은 은퇴교역자들을 위해 벌이는 은급사업의 정착화를 위해 각 교회에서 은급 의무금으로 예산의 1백분의 1을 상납하도록 하고, 재일대한 기독교 총회의 50교회 개척 지원금으로 6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의했다.

교역자 의료보험 설립

— 평신도단체협의회 —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18일 오후 6시 코리어나호텔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에 유상열장로를 선출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교역자 의료보험조합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7개 교단에서 30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동 총회에서 뽑힌 새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유상열, 부회장 김경래·김성규·김희철·오건·서병하·이영갑·최기준, 총무 서정원

1백주년 기념사업위

— 상임사무총장에 최훈목사 선임 —

한국기독교 1백주년 기념 사업협의회 실행위원회는 상임 사무총장으로 최훈목사(동도교회 서무)를 선임했다.



이달의 교우동정

"자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저
빈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히 10:24, 25)

11월의 새 교우

● 1 지구

장위 2구역 김인달
반동 구역 최만복
장위 1구역 최원섭
미아 2구역 김기호
광희 1구역 이경자
광희 1구역 김수중
상계 1구역 박석재
삼선 1구역 노태일
삼선 2구역 장영건

● 2 지구

편목 23구역 김종순
성내 구역 김선호
마장 구역 김기표
면목 7구역 조담연
종곡 3구역 홍종락
둔촌13구역 조원민

● 3 지구

장길1, 3구역 박관일
행동 2구역 정정려
장동 6구역 김진홍
왕십리구역 강원욱
왕십리구역 손기현

● 4 지구

은마 4구역 이병우
금호 4구역 권동락
신정 1 구역 이영철
성남 1구역 최석길
청남 2구역 민필호

● 5 지구

남대문구역 김분기
용산 2구역 김정순
후암 1 구역 최경선
용산 3구역 목토룡
상도 3구역 이 연
안양 2구역 장경수
독산 구역 박민석
대방 1 구역 현명섭
팔동 5구역 김연규

● 6 지구

문래 구역 이명옥
이촌 구역 이상익
구로 구역 박문태
북아현구역 이병천
도화 구역 서두현
도화 구역 김영식
용문 구역 김지열
신정 구역 김동립
문래 구역 임희수
영원 1 구역 김홍국
이촌 구역 전상훈
도화 구역 장석찬
역곡 구역 이진수
신월 구역 이규범
원현 1 구역 심정택

● 7 지구

역촌 2구역 이지상
청신 1 구역 윤원식
청신 1 구역 정의준

장신 3 구역 박원천
종립 구역 김정렬
동건 구역 안귀득
역촌 1 구역 손용규
갈현 구역 권시호

서대문구역 정태훈
종신 구역 서미숙
영문 2 구역 김재규
종문 1 구역 이정현

결 혼

● 고희재양 (김은숙권사
딸) 10월 25일

● 이명아양 (이임희씨
백영희권사 딸) 10월
26일

● 김영숙양 (김남전집
사 딸) 10월 26일

● 황철규군 (황기성장
로 김삼권권사 장남)
과 박두이양 (산전부
교사) 10월 27일

● 양미혜양 (양재철씨
정명섭집사 딸) 10
월 30일

● 전종배군 (전희문장
로 아들) 10월 30일

● 김성삼군 (김원남목
사 3남) 11월 3일

● 한정은양 (변목구역
임순집권사 딸) 11월
3일

● 이선홍군 (이석원씨
이상덕권사 아들) 11
월 6일

● 김보영양 (제 1 성가
대원 김분선권사 딸)
11월 13일

● 김동민과 이영희 양
(제 2 성가대원 조순
덕집사 딸) 11월 15일

● 전원익군 (조명녀권
사 아들) 11월 16일

● 김영식군과 김정자
양 (윤순탄권사 딸)
11월 18일

● 강주해군 (김종심씨
전인화권사 아들) 11
월 18일

● 정태욱군 (정홍걸씨
김정선씨 아들) 11
월 19일

● 정을용군 (쌍문구역)
과 김상화양 (회경구
역) 11월 20일

별 세

● 김팔만씨 (쌍림 4 구
역) 11월 5일

새로 나온 교우는

● 새교우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
은 자입니다. 장년부에서 1, 2부로 나뉘어져 있
는 10 장년부에서 1부에서 6
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
께 「학금」을 받게 됩니다.
「학금」을 받은 사람은 장
년 부에서 2부에 가서서 6개
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
께 「새교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부에서 2부에서는 기본
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
스도교의 생애에 관하여 자
세하게 가르칩니다.

● 장년부에서 2부에서 1부
로 12개월, 1부는 장년부에서
1부에서 2부로 12개월
교육받습니다.

교회소식



휘튼 '83 선교대회 - 김창인목사 주강사로

휘튼 '83(Wheaton '83) 선교대회가 미국 시카고 소재 휘튼대학교에서 오는 83년 6월20일부터 7월 1일 까지 "교회의 본질과 선교"라는 주제로 열린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16:18) - I will build my church!" 는 표어를 내걸고 개최되는 동 선교대회의 제 1 협의회 토의주제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에 대하여 중산층을 상대로 한 교회성장의 대표적 케이스로 대한민국의 총현교회가 지목되었고 총현교회 성장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세계 선교학계와 선교 실무자들의 연구 및 성장 모범으로 삼고자 김창인 목사를 주제강사로 초청한다고 동 선교대회 본부가 발표했는데 주제 발표 및 평가자는 다음과 같다.

주제강사 : 김창인 목사

발 표 자 : 이종윤 목사

평 가 자 : 노봉림 박사

해외복음선교회 총회

해외복음선교회 총회가 지난 28일 회원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동 총회는 임원 및 실행위원을 결정하고 8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조직을 단행하여 83년도의 사업을 알차게 진행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기도원 부흥사경회

충현기도원부흥사경회가 지난 11월22일부터 26일 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일군은"(시25:1)이라는 총 주제 아래 김창인 목사(저녁부흥회), 조준상 목사(새벽기도회)등이 강사로 나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끝마쳤다.

주교 교사총회 개최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각부 주일학교 교사총회를 개최한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에는 83년도에 봉사할 각부서를 확정 발표하고 각부별로 회집, 인사 소개 및, 사업계획 등 내년도 설계를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총회가 오는 19일 열리는데 신학교육위원들이 참석하여 8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주일학교 실무자 간담회도 오는 9일 열려 신학교육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83학년도 주일학교를 위한 상호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 한다.

새성전 2 차공사 현황전시

건축위원회는 전성도들이 다같이 새성전건축 진행상황을 확실히 알고 새성전 건축에 적극 참여하는 마음이짐을 드높이고자 교회정문 앞에 "새성전 2 차 공사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관 칸막이 공사를 비롯, 설비하수도 공사를 생생하게 찍은 중형 천연색 사진(11매)을 전시한 건축위원회에 의하면 금년 12월까지 130만~150만장을 쌓아 올리는 벽돌공사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교사단기교육 성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82년도 제 2기 교사단기교육이 "예수께 받은 사명 생명바쳐 충성하자"는 주제 아래, 지난 11월17일부터 19일까지 본당에서 열렸다.

첫날 강사로 나선 김창인목사는 "생명을 키우는 자는" 제목의 강의를 했고, 둘째날과 세째날에는 천정웅목사가 "교사의 사명", "교육의 방법론" 등에 관한 강의를 했다.

직장추수감사절

한일병원과 부천한국금속(알미늄샷시=정선화 권사)에서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국금속 사장과 직원들은 새성전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동사는 주야간으로 작업을 하며 전직원 복음화가 목적이다.



학력고사 준비기도회

고등학교 3년생들의 학력고사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지난 14일 유년부실에서 개최됐다. 고등부 학생과 학부모 다수가 참석한 동 기도회에서 최봉호(고등부 지도)목사는 "여러분은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을 잘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직장예배와 성경공부

본교회 교역자 가운데 10분이 직장예배와 직장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다. 직장에서도 찬송이 울려 퍼지고 복음의 역원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다. 직장복음화는 곧 민족복음화의 일환임을 깨닫고 같이 협력하여 힘쓰기를 바란다.

도서 특강 실시

지난 11월 3일 본교회 도서실에서 “한국크리스찬 문학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김병로 목사 (정신교회시무)의 특강을 가졌다.

군중훈련 실시 및 십자탑 기공식 거행

○○사단 군중훈련이 11월 1일부터 5일 까지 개최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강사는 허충욱, 박동실 목사가 수고 했는데 이번 훈련에는 군인 가족이 대거 참여하여 낮에는 군중훈련 및 성경 공부를 박동실 목사가, 저녁에는 심령부흥회를 허충욱 목사가 각각 인도 했다.

한편 ○○사단 최전방 지역에 지난 17일 “승리의 십자탑” 기공식이 있었다 39m 높이의 철제 십자탑을 최전방에 세우고 성탄 트리가 장식 중이며 북녘땅에 찬송이 울려 퍼지길 기다리고 있다.

교회소식



천성덕목사 일시귀국

우리교회의 유일한 자매교회인 캐나다 소재 칼가리한인교회 담임 천성덕 목사가 지난 11월 10일 업무차 일시 귀국, 본교회 선교위원회 실행위원들과 특별간담회를 갖고 선교적 차원에서 상호 도움이 되기로 했다. (20일 출국)

총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예배후
- 매 주 수요일예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 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셔서
광주 초월 14번을 신청

각 종 통 계

1982. 11. 7 (매월 첫주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배	주 일 낮	I부	207	397	총세대수	4,535
		II부	422	1,109		
		III부	421	808		
		IV부	215	459		
		V부	189	400		
배	주 일 저 녀		199	373	신	교인
	삼 일 저 녀		158	336		
주 일	어린이새신자부	18	12	30	급	별
	영 아 부	216	183	399		
	유 치 부	150	183	333		
	유 년 부	197	199	396		
	초 등 부	202	213	415		
	중 등 부	174	168	342		
	고 등 부	116	137	253		
	대 학 부	61	51	112		
	청 년 부	61	102	163		
	장 새 부 I	30	100	130		
학	장 새 부 II	19	66	85	교인	학습
	장 년 부	21	272	293		
	노 년 부	32	124	156		
	산 업 교 육 부	31	80	111		
교	선 교 부	14	50	64	원입	교인
	새 가 정 부	20	32	52		
	합	3,173	5,854	9,027		
	계					
신	총수	남	4,205		신	교인
		여	6,140			
		계	10,345			
		남	2,312			
급	세례	남	2,312		급	별
		여	3,849			
		계	6,161			
		남	641			
교인	유아	남	641		교인	유아
		여	528			
		계	1,169			
		남	317			
원입	교인	남	317		원입	교인
		여	442			
		계	759			
		남	935			
합	계	남	935		합	계
		여	1,321			
		계	2,256			
		남	2,256			

12월의 행사

◇ 교 회

3 일 / 정기당회
5 일 / 83년도 구역권찰 임명
12일 / 83년도 주교교사 임명
19일 / 83년도 성가대원 임명
25일 / 성탄절

◇ 전도위원회

1 일 / 산업전도회 조찬기도회 및 월례회
12일 / 남전도회 월례회
19일 / 여전도회 월례회
/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26일 / 전도위원회 월례회

◇ 교육위원회

19일 / 교육위원회 총회
26일 / 교육위원회 실무자 간담회
/ 주교 각부 수료 및 집급식
28일 / 주교 각부 교사총회

◇ 심방위원회

5 일 / 제직회
12일 / 권사회 총회
19일 / 심방위원회 월례회
26일 / 구역권찰회의

◇ 재정위원회

19일 / 재정위원회 월례회

◇ 건축위원회

26일 / 건축위원회 월례회

◇ 자산관리위원회

19일 / 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 출판국

5 일 / 월간 충현 12월호 발간
26일 / 출판국 월례회의

편집후기

◇한해를 결산하는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해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움과 안타까움 만이 앞섭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우리들은 올바른 생을 살아왔는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하지않겠습니까? 남은 한달 동안이라도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여 힘찬 발걸음을 새로이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교회는 지난 한해동안 갖가지 행사와 사업을 추진해나왔습니다. 특별히 천국일군 양성,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선교를 위하여 매진해왔습니다.

또 막중한 새전전건축에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이 모든 사역에 동참했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해에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 / 조 현 명

편집위원 /

조 선 근	김 차 생
손 경 수	오 태 용
김 중 주	김 정 태
이 형 수	

1982년 12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제10권 제11호

통권 제105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2년 12월 1일 인쇄

1982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편집부장 / 장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1000 - 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 가 36

전화 / 274 - 2171 · 2172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판문점을 시찰한 당회원 일동



◇ 주수감사절 기념 예배모습



◇ 대입학력고사를 위한 준비기도회 모습



◇ 중등부가 주최한 시와 찬양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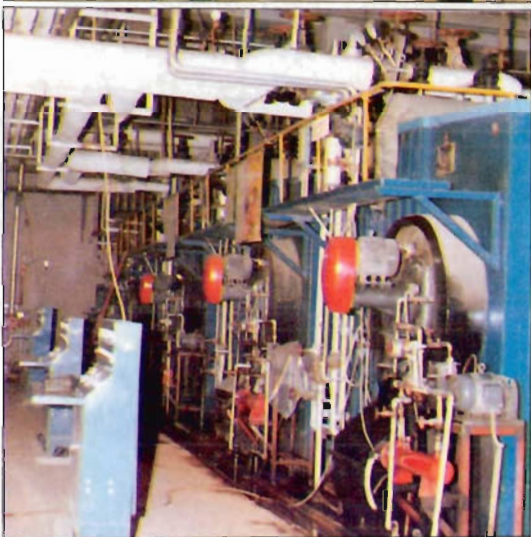


◇ 새성전 2차공사 현황 속보판(건축위원회)



◇ 선교지역 연구를 위한 현황판 게시

충현교회 새성전 조감도
BIRD'S-EYE VIEW OF CHUNGHYEON CHURCH



폐사에 하명해 주십시오
15년의 전통과 경험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사업 종목

- ① 냉난방 및 위생 설비 시공
- ② 기계 기구 설비 시공
- ③ 상하수도 공사
- ④ 소화 설비 공사
- ⑤ 주택 건설 사업

대표이사 金 相烈 집사
상무이사 李 進洙 집사
상무이사 李 成·大



南洋設備株式會社

주소/서울시 중구 수표동 47-6, 천수빌딩 304호
전화/266-4465, 2470 · 269-2260, 2767
· 265-2672(자택/829-4353)